

LAND ROVER

ONELIFE

우 리 의 세 계 에 서 최 고 의 결 과 를 빛 어 내 기

FOREVER HOUSE

모더니스트 건축가 리처드
뉴트리가 만든 덜 알려진
유럽 건축물을 방문하다

CHARGING POINT

센젠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청사진이 되려 하는가

ROCKETMAN

달 위를 걸었던 이들 가운데
오직 네 명만이 생존해 있다.
그들 중 한 명을 만나보자

KOREA EDITION

I ISSUE 38 SPRING 2019 I

O L Y M P I A N T R I U M P H

아테네에서 더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로 드라이브하기





LIFE. LIMITLESS.

클락스와 랜드로버 혁신 실험실의 구상

자신의 분야에서 새지평을 열어온 클락스와 랜드로버는 전통을 깨고 경계를 넘어 끊임없이 진화해온
풍부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같은 목적은 라이프.무한 의 개념을 낳았고 이는 대도시로부터
산행을 갈 수 있도록 설계된 신발들을 창조해 왔습니다. 탐험을 통해 당신의 세계를 되찾으세요.



그립

습도가 높은 건조한 조건에서든 최적의
그립감 정밀하게 보정된 탄탄한 모놀식 고무
밀창과 정지 마찰력을 주기 위한 걸창의
밀동.



환경

도시 생활이든 전지형 산행이든, 호흡력이
뛰어나면서 방수력이 좋은, 강력한 고어텍스
(GORE-TEX).



안정성

정밀한 감촉을 지닌 중창은 지면에 닿을 때
최적의 반발력과 에너지 반응을 낳습니다.
뒷꿈치의 안정화 장치는 발 위치에 믿음성을
전달합니다.

SAVOIR



EXTRAORDINARY BEDS

savoirbeds.com

London

Paris

New York

Düsseldorf

Moscow

Berlin

Shanghai

Hong Kong

Seoul

Taipei

PHOTO: GREG WHITE

WELCOME

ISSUE 38

COVER: MICHAEL SCHNABEL

발길이 적은 길에 올라라...

랜드로버 차주 전용 매거진 <원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번 호 역시 현재를 넘어섬으로써 최고의 것을 삶에서 얻어내라고 말해주는 인사이트 넘치는 이야기들과 경이로운 사진들이 랜드로버라는 브랜드에 부응하고 있다. 중국의 혁신적 생태도시부터 브라질의 매혹적인 카니발 서브컬처, 어느 미국 우주비행사 그리고 도시적 쿨함의 전형인 영국 톱 패션 모델이자 활동가와의 미팅까지, 세계 곳곳으로부터의 다양하고 풍성한 시각들을 만나보며, 랜드로버가 출시한 최신 자동차들의 세계를 탐험하길 바란다. 더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심층 드라이브, 레인지로버 벨라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PHEV와 함께 한, 즐거운 상상을 자극하는 경험들 그리고 모두가 간절히 기다려온 뉴 랜드로버 디펜더의 최초 공개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을 운전석에 앉게 하며, 여러분이 세계에서 최고의 것을 얻어내도록 도와주는 이야기이다.



08

26

CONTENTS

ISSUE 38

08_ROUND-UP

새로 개장한 럭셔리 호텔,
세계 곳곳의 이벤트부터 여행
팁과 트렌드까지, 가장 멋진
불거리, 시도, 체험을 선별해놓은
우리만의 큐레이션

20_PREVIEW

서사시적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
자동차 아이콘, 더 뉴 랜드로버
디펜더가 곧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테스트 중인
차량을 처음으로 살펴보자

22_NEW MODELS

오리지널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디자인의 역할이 컸다. 이제, 뉴
제너레이션 모델이 이 햇살을 더
먼 미래로 전달할 예정이다

26_DRIVE

모터링 전문 기자 켄 김슨이
봄비는 그리스 수도에서 올 뉴
이보크의 운전대를 잡고 주행
인상기를 단독 기록했다

32_PERSONALITIES

최첨단 스타일이며 천연의 쿨함을
지닌 영국 탑 패션 모델 애드와
야보아는 런던의 상징이다. 무엇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왜 자신이 이 다이내믹한 도시를
사랑하는지 그녀가 직접 들려준다

34_DESIGN

전설의 현대 건축가 리처드
뉴트라와 캘리포니아 작품들은
유명하지만, 그가 유럽에 남긴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다.
벨라를 타고 독일에 남아 있는 그의
프로젝트 중 한 건축물로 향했다

40_VOYAGES

전설적 탐험가 라놀프 파인스
경이 자신의 1969년 나일강
탐험을 재현했다. 이번에는 배우
조셉 파인스 그리고 랜드로버
디스커버리가 여정에 합류했다

44_EXPLORERS

달에 발을 디뎠던 이들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오직 넷뿐이다.
최초의 달 착륙 후 50년이 지난
지금, 그 중 한 명을 만났다.
우주비행사 찰리 듀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48_FRONTIERS

개인들의 우주 여행은
더 이상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수
개월 이내에 승객들을 우주로
보내겠다는 버진 갤럭틱의
계획을 살펴봤다

50_TRAVEL

‘메이드 인 차이나’가 ‘크리에이티브
인 차이나’로 변신하고 있다. 동력은
무엇일까? 레인지로버 스포츠 PHEV를
타고 센젠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만난
야심가들이 바로 그들이다

58_CRAFTSMANSHIP

명품 시계 맞춤제작 사업 분야의
성공적 경영인 조지 뱅포드, 랜드로버
모델들에 대한 진정 어린 애정이
인상적인 인물이다. 그를 인터뷰했다.
당연히 장소는 오프로드였다

62_CULTURE

리우 데 자네이루의 카니발은
유명세만큼이나 눈부시지만, 커튼을
열어보면 독특한 서브컬처를 만날 수
있다. 영화제작자 벤 홀맨이 베이트
볼라 현상을 설명한다

PHOTOGRAPHY: VANDER ARMANDO, STUDIO SCHNABEL, STEFEN CHOW, NEIRIN JONES



50



62

66_HERITAGE

랜드로버 클래식 워크가 발굴한
녹슬고 오래된 레인지로버 한
대는 경이를 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슬픈 사운드트랙이
있는 어떤 여행을 추적했다

70_INNOVATION

아름다운 디자인이 혁신적
사고를 만나면 전설적인 작품이
탄생하는 법이다. 랜드로버
본 워어즈를 수상한 최근의
수상자들을 소개한다

74_PIONEERS

와스피아 나즈린은 산들을
오른다. 유명한 일곱 개 산의
정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난제들도. 불꽃 같은 열정이
이채로운 등산가이자 활동가들
만나보자

76_THE ESSAY

우리의 발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
화석을 찾아 다니는 켄 라코바라에
따르면, 최고의 이야기들이 잠겨
있다. 켄이 특유의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며 지구의 아래쪽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78_COLUMN

극지 탐험가 벤 손더스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를 타고
자신의 여정들을 돌아본다. 또한
모험을 진정 기억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들려준다

CONTRIBUTORS



미카엘 슈나벨(MICHAEL SCHNABEL)

수상 경력이 빛나는 독일 풍경 사진작가의 독특한 비주얼 스타일은 감각적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그의 천부적 능력을 보여준다. 이번 호를 위해
미카엘은 아테네에서 더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카메라에 담았다. 동시에
그는 차량과 도시 양자의 생생한 개성을 능숙한 솜씨로 전달했다.



바이샬리 디내크런(VAISHALI DINAKARAN)

인도의 유명 모터스포츠 기자인 그녀는 최근 모터링작가조합(GUILD OF
MOTORING WRITERS)이 수여하는 상을 수상했다. 베를린에 거주하는
작가 바이샬리의 전문 분야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열정이 넘치는 초상화적
글쓰기로, 이번 호를 위해 미국 우주비행사 찰리 드류크를 만났다.



루크 폰스포드(LUKE PONSFORD)

런던에 살고 있는 라이프스타일/모터링 작가로 자동차, 시계, 고전 디자인의
광팬이다. 그가 난생 처음 레인지로버 벨라를 타고 어느 모던리스트
건축물을 방문했을 때, 그런 연후 시계 맞춤제작자를 만나 인터뷰했을 때,
그의 여정은 빨리 찾아온 크리스마스 같은 선물이었다.



스테픈 초우(STEFEN CHOW)

말레이시아 태생이며 베이징에 거주하는 이 사진작가의 작품은, 글로벌
브랜드들을 소개하는 상업용 사진부터 개인 갤러리 '사회적 양심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들'까지 다채롭다. 이번 호에서 스테픈은 중국 도시 센젠에
관한 우리의 여행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었다.

Onelife magazine is published by Spark44 Ltd, The White Collar Factory, 1 Old Street Yard, London EC1Y 8AF, UK on behalf of Land Rover, Abbey Road, Whitley, Coventry CV3 4LF. Copyright Spark44 Ltd. 2019. 저작권 일체가 보호되며, 문서 형태로 된 출판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재생산하는 일은 금지됩니다. 잡지에 표현된 의견은 랜드로버의 의견이 아니라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원라이프> 매거진의 콘텐츠는 심혈을 기울여 편집되지만, 이 잡지에 표기된 세부내용과 글 그리고 도구, 장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서 촬영된 필름과 사진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허가가 취득되었으며, 인쇄 당시 모든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원한다면, 공식 랜드로버 매장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온로드에서든, 오프로드에서든 책임지는 자세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잡지는 청탁되지 않은 원고나 사진 또는 일러스트를 수용하지 않으며, 그것들에 관련하여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PATHFINDER

EXPLORE YOUR WORLD





수십 년 간 블루 라군(Blue Lagoon)은 아이슬란드를 대표해온 한 아이콘이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시대인 지금에도 이 아름다우면서도 험준한 섬의 천연 지열 에너지가 가열하는, 김이 펄펄 나는 부드러운 푸른빛 온천수는 여전히 확실한 강자로 남아 있다. 하지만 블루 라군은 단지 예쁜 곳만은 아니어서 미네랄 풍부한 온천수와 진흙은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스파, 레스토랑, 실리카(Silica) 호텔 단지를 포함한 기존의 시설들을 통합 확장한 새 호텔 ‘더 리트릿 앳 블루 라군 아이슬란드’(The Retreat at Blue Lagoon Iceland)가

GETAWAY BEAT THE BLUES

문을 열었다. 이 럭셔리한 새로운 시설은 맛깔 나는 미니멀리스트 미학 경험을 제공한다. 이 건축물은 주변의 화산 지대 사이에 동지를 튼 채 흐르는

물, 밋밋한 용암 바위 같은 자연물들을 끌어안고 있는데, 시각적 조화로움, 질감의 풍요로움,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서이다. 62개의 스위트룸은 통창을 갖춘 차분한 공간으로, 특히 60m2 라군 스위트룸(1박 가격은 1,950 파운드, 미화 약 2,515 달러부터 시작)은 넓은 테라스를 갖추고 있고, 개별 석호(온천) 출입이 가능한 방이다. 신선한 제철, 지역 재료가 파인 다이닝의 순간을 순수함의 축제로 만들어주는 호텔 내 미식 레스토랑인 모스(Moss)에서 하루를 마감하면 좋다. www.bluelagoon.com



PHOTO: IAN BEATTIE/AUSCAPE/CONTRIBUTOR/GETTY IMAGES



ARTSCAPE
LAKE BALLARD

오십 명의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캠핑 휴가라면 어떠실지? 아 참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강철로 만들어진

이들이다. 한때 금광으로 유명했던 오지 마을 맨지스(Menzies, 이 도시 자체가 오염되지 않은 서 호주의 광활한 땅에 찍힌 하나의 점이다.)에서 50km 떨어져 있는 발라드 호수(Lake Ballard)의 소금 평원. 호평 받는 조각가 앤토니 곰리(Antony Gormley)가 이곳에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초상화를 근거로 51개의 초현실적 강철 조각상들을 세웠다. 이 기괴한 설치 작품 덕에 이곳은 호주 아웃백 로드 트립에서 결코 잊지 못할 여정지가 되고 있다. 조각상들 사이를 조용히 산책할 몇 시간의 시간을 따로 확보해두시길. 이 소금 호수에 차량 접근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광활하며 경이로운 땅과 하늘의 경관 덕택에 캠핑하는(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즐거움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단, 안전한 것만을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권장하고 싶지 않다. 방문자들은 식수와 장작을 손수 준비해와야 하기 때문이다. lakeballard.com



EXPERIENCE SOUND ON THE MOVE LIKE NEVER BEFORE

We are the pioneers of high resolution audio and proud partners with Jaguar Land Rover. Our shared passion for quality, luxury and innovation drives us to create the most immersive sound whilst on the move. The twists, the turns and the rhythm of the road ahead. Each album, every song, in authentic and exceptional detail.

meridian-audio.com



MERIDIAN



SALT ALL YEAR

이 유목형의 아트 페스티벌은 노들랜드(Nordland)의 오지에서 시작되었다. 지금은 오슬로 한복판에서 열리고 있고 행사는 내년까지 이어진다. 노르웨이 어부들의 어물 거치대를 변형한 전통적 나무 건조물들이 커다란 사우나, 전시 및 음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salted.no

SARDINE RUN MAY-JULY

수십 억 마리의 정어리들은 남아프리카 해안가에 산란을 한 뒤, 장대한 행렬의 무리를 이루어 해양 포식자들에 쫓기며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을 따라 북상한다.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해양 이벤트 중 하나인 정어리 런(Sardine Run) 투어는 무수한 업체들에서 운영 중이다. 다이빙, 스노클링 자격증이 있는 이들은 1등석을 제공받을 수 있다.

YUKON 1000 JUNE

세계에서 가장 긴 구간의 카누 경기 대회를 위한 등록이 시작된다. 대회는 캐나다 최북단, 수천 마일에 이르는 유콘 강 일부에서 펼쳐지며, 경주 구간은 캐나다에서 알래스카로 이어져 북극권에서 끝난다. 세계 곳곳에서 선수들이 참가하며, 궁극의 카누 축제로 알려져 있는 행사다. yukon1000.org

NAADAM JULY

나담(Naadam)은 '사내들의 세 경기' 즉 '에리인 구르반 나담(eriin gurvan naadam)'이라는 말의 줄임말. 몽골의 국민 스포츠 경기인 레슬링, 경마, 양궁을 즐기는 스포츠 축제다. 몽골의 모든 소도시와 농촌 마을에서 열리지만, 공식적인 축제는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다. naadamfestival.com

PHOTOGRAPHY: ENDRE LOHNE, DOUG PERRINE/GETTY IMAGES, JAY DICKMAN/CONTRIBUTOR/GETTY IMAGES, JACK TAYLOR/GETTY IMAGES, JODHPUR RIFF/OJO, ENTE FIERA DEL TARTUFO - FOTO DAVIDE CARLETTI, DOGWALK(2015)/MAELLA JAARSMA



GUČA TRUMPET FESTIVAL AUGUST

집시가 영감의 원천인, 발칸 특유의 광란의 음악의 중추는 다름 아닌 브라스 (Brass)이다. 수많은 밴드들, 특히 트럼펫 연주자들이 왕좌를 차지하려고 겨루게 될,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구차 (Guča)의 주말 불협화음의 축제 때는 더욱 그럴 듯하다.
gucafestival.rs



JODHPUR RIFF OCTOBER

라자스탄(Rajasthan) 국제 민속 축제가 전설적인 인도 도시 조드푸르 (Jodhpur) 소재 거대한 메랑가 (Mehrangarh) 요새 안에서 개최된다. 클래식 앙상블, 세계 연극 공연과 더불어, 순회 공연하는 포크 뮤지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Mick Jagger 경이 이 축제의 열렬한 팬이자 후원자이다. jodhpurriff.org



FIERA DEL TARTUFO OCTOBER - NOVEMBER

세계 일급의 요리사들이 이태리 피에몬테의 소도시 알바(Alba)에 내려온다. 화이트 트뤼플(흰 서양송로, 버섯의 일종) 시즌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초대받은 이들만 참가 가능한 트뤼플 경매이지만, 트뤼플 마켓에서 누구라도 구매할 수 있으며 수많은 트뤼플 요리들을 시식할 수 있다.
fieradeltartufo.org



SETOUCHI TRIENNALE UNTIL NOVEMBER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세토 인랜드 해(Seto Inland Sea)의 몇몇 아름다운 섬들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는 예술 축제다. 섬 안의 건물들과 풍경들 가운데 현대 설치 예술품들이 설치된다. 봄맞이, 여름축제, 가을만개라는 이름의 세 기간에 걸쳐 축제가 열린다.
setouchi-artfest.jp



SURVIVE THIS WILD ANIMAL ENCOUNTERS

남아공의 크루거 국립공원(Kruger National Park)의 사파리 안내자 앨런 맥스미스(Alan McSmith). 그는 현재 바이러스처럼 조취수가 늘고 있는 한

소셜 미디어 동영상에 등장하는 스타다. 이 동영상에서 그는 제 자리에 섰 채로 어느 성난 초대형 코끼리에 맞선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피상적으로 슬쩍 한번 봐서는 코끼리의 지능과 복잡성을 알아낼 수 없어요. 그들과 같이 지내보고, 걸어서 직접 그들의 뒤를 따라가 봐야 하죠. 이런 식의 만남은 꽤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나 람보(Rambo) 스타일로 안내하며 코끼리와 맞서기 같은 건 아니랍니다. 어떤 교육용으로는 그 동영상을 사용하는 의도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소총을 지니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행이었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지. 서로 만났던 순간, 즉 코끼리가 가까워졌을 때, 행동의 시나리오는 전혀 없었어요. 스토리보드도 없었고요. 몸짓 언어의 과학으로 코끼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즉, 녀석의 눈과 코, 귀와 꼬리, 녀석이 내는 소리와 움직이는 방식을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녀석이 무엇을 할 건지 추정할 수 있어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맞는지 판별해보면서요. 하지만 저는 코끼리가 책 읽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지요. 특히 고객들을 안내하는 안내자라면 더욱 그럴 거예요. 하지만, 야생 동물에 대해서라면 그건 잘못된 행동일 수 있죠. 인간의 생각과 시간 감각이 그 야생 동물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잘 처리하고 또 넘어갈 수 있다면, 안내자는 긴장을 완화시킬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지요.”

“안내자가 제 자리를 굳게 지킨 채, 무얼 할지 코끼리에게 제안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코끼리가 그걸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이 만남에서 저는 결과를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지 않았답니다. 그저 코끼리가 하는 행동 모두를 받아들였어요. 녀석이 옆으로 움직이면, 저도 옆으로 움직였죠. 앞으로 움직이면, 저는 뒤로 움직였구요. 그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의 안무에 의한 춤이었죠.”

“코끼리와 인간 사이의 직관적 상호이해가 긴장을 완화시켰어요. 패닉 상태는 전혀 없었고요. 제 뒤에 있던 사람들조차 자기들이 얼마나 침착했는지 스스로 믿지 못했죠. 이러한 만남은 논리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의 경계선을 뛰어넘었어요. 때로 우리는 장벽을 허물어야만 하죠. 의미 있는 만남이 있는 곳이란 언제나 장벽이 허물어진 곳이니까요.” 동영상을 보려면 방문하시길. alanmcsmith.weebly.com

왼쪽: 만일 몸무게 6톤의 코끼리가 당신을 향해 육박해온다면 어떻게 할 텐가?



거의 모든 곳을 방문해 봤다면, 다음 행선지를 어디로 정하면 좋을까? 최첨단 과학에 힘입어, 지금의 자기 자신을 뒤훑들어 보시길. DNA 자가 테스트 키트 덕분에 ‘가족 계보’는 멋진 것이 되었고, 자기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 트렌드가 싹을 틔우고 있다. 물론 구세계를 찾아가는 신세계 사람들의 관광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용 간편한 DNA 자가 테스트 키트의 등장으로 (타액의 샘플이 그런 것처럼) 누구라도 자신의 조상들이 어디 묻혀 있는지를 알아내고, 자신의 조국을 찾아 방문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TRENDSPOTTER
DNA TOURISM

MIT 테크놀로지 리뷰 지에 따르면, 2018년 초까지 약 1,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테스트를 시행했다. 이 테스트는 현 세계 인구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참가자의 테스트 결과를 도출해내며, 참가자의 DNA와 일치하는 공통 유전자 변이군을 찾아내어 일치 확률을 제시한다. 즉 일종의 백분율 게임이지, 100%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테스트는 아니다. 현재 약 40개 기업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은 참가자 DNA 나선의 지리상 위치, 아울러 참가자의 특정 공통 조상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계보 안내도로인, 모계와 부계의 하플로그룹(haplogroup)들에 관한 상세 보고서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과학에 최종적 진리 같은 건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여행의 만끽과 결합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스킬은 거부할 수 없는 카테일이다.



TRAVEL SECRET GRAPE EXPECTATIONS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30종의 품종을 심은 11만 2천 헥타르의 포도밭. 5천년 역사에 빛나는 와인 생산 전통. 세계 최대 규모의 와인 창고. 왕과 여왕, 대통령들이 즐겨온 와인을 만들어온 곳. **도대체 어디일까?** 몰도바 (Moldova)에 있는 코두르(Codru), 스테판-보다(Ștefan-Vodă), 바를 루이 트라이안(Valul lui Traian)의 시골이 바로 그곳이다. 상질의 레드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 브랜디 생산에 적합한 산지다. 이 지역의 역사적 전통도 흥미롭다. 네그루 드 푸카리(Negru de Purcari)는 1878년 파리 엑스포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그리하여 러시아 황제들이 가장 즐기는 와인이 되었다. 세계 최고의 와인 창고를 갖춘 크리코바 와이너리(Cricova winery)는 **필수 방문지**다. “이곳의 지하 와인 창고들이 상파뉴 지역의 와인 창고들을 전부 합한 것보다도 크답니다.” 미국 포도주학자이자 와인 마스터인 크리스티 캔터베리(Christy Canterbury)가 알려준다. “저 아래쪽에는 위치 표시등과 도로 안내판까지 있죠.” 소비에트 규모의 산업용 와인 생산이 아니더라도, 몰도바 와인의 우수한 품질 자체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크리코바 그리고 인근 시골의 와인 창고들 때문에 전 세계의 주요 인사와 셀럽들이 찾는 지역 와인들이 빛을 바래고 있는 것. **최고의 와인을 고르고 싶다면?** 천연 보틀 내 발효(상파뉴 방식)라는 현지 전통이 있는데, 이것은 곧 모든 몰도바 스파클링 와인이 적어도 9개월 이상 최대 5년까지 숙성된 것임을 뜻한다. 자, 잔을 들어 건배할 시간이다. wineofmoldova.com

“제가 사진을 선택했던 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을 포착하고 싶어서죠.” 아이밴더 파지 아르만도(Ivander Fauzy Armando) 또는 줄여 ‘밴더’(Vander,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를 이렇게 부른다)의 말이다. 이 26세 청년의 인스타그램 계정 @familywithnature는 이러한 순간들이 어떤 것인지 확연히 보여준다. 밴더만의 독특한 시각 미학은 이 소셜 미디어 피드 전체에서 금세 알아볼 수 있다. 대부분 자신의 고향 땅인 인도네시아의 자연과 장대한 풍경에 초점을 맞춘 사진들로, 따뜻한 색감, 놀라운 빛의 반사, 장엄한 느낌의 드론 샷이 사진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SOCIAL LENS @FAMILYWITHNATURE

그의 사진들에 반복해서 출현하는 또 다른 테마는 바로 가족이다. 그의 아내와 딸들이 정기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의 포스트는 지극히 내밀한 느낌을 갖는다. “가족들 그리고 카메라와 함께 여행하기를 좋아해요.” 밴더의 설명이다. “가족들과 함께 경험하는 잊지 못할 순간들이 있고 저는 그걸 기록하죠. 그리고 그걸 세상과 공유하고 싶은 거고요.” 인기 인스타그램어를 향한 밴더의 여정은 7년 전, 세프로 일하고 있을 때 시작되었다. 딸들과 함께 하이킹을 하며 사진을 찍다가 문득 사진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충분한 시간을 융합할 때의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후로 인스타 계정을 진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12,000명이 넘는 팔로워들이 그의 이 두 열정을 공유하려고 그의 계정을 찾고 있다.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해보세요

shop.landrover.com



ABOVE & BEYOND



가까운 매장이나 shop.landrover.com에서 제품을 구입하세요.

W A T C H T H I S S P A C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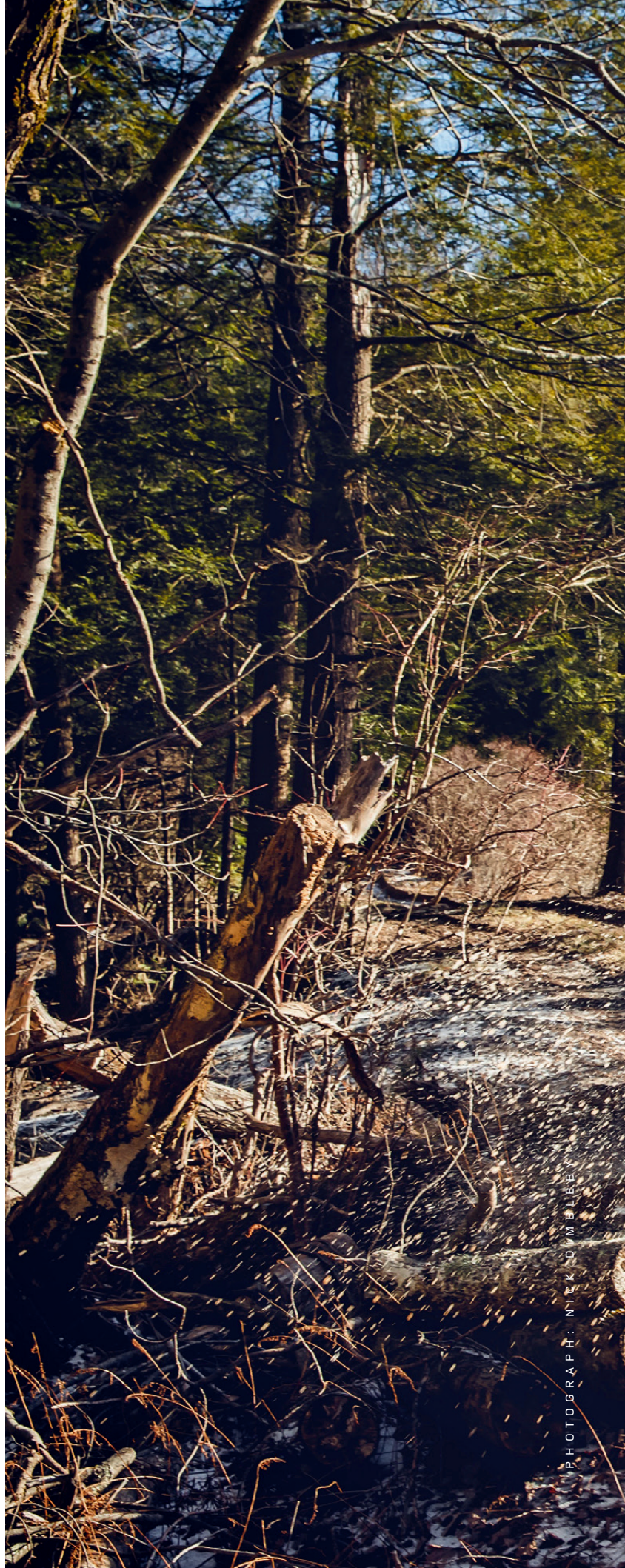
가장 간절한 기다림을 불러온 세기의 자동차 출시가
가까워지고 있고, 점차 흥분이 고조되고 있다.
더 뉴 랜드로버 디펜더를 맞이할 준비를 하자

디펜더(Defender)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 차량의 직계 후손이다. 선구적 전지형용 승용차였던 시리즈 랜드로버(Series Land Rover) 말이다. 이러한 혈통은 디펜더의 상징적 외관, 그리고 도로에서 (이러한 사안이라면 오프로드에서도) 아직까지 볼 수 있는 수십 년 된 차량들의 강철 같은 강인함 양자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농장과 오지, 차량 뺑뺑한 도심과 사파리 공원, 그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디펜더는 세계적인 모터링 아이콘이다.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더 뉴 랜드로버 디펜더의 출시가 랜드로버만이 아니라 전세계 수백만의 열정적 팬들에게 메이저 이벤트인 이유다.

랜드로버의 팀들은 지금 더 뉴 디펜더가 오리지널 디펜더만큼이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새 모델은 지금의 세상에 맞도록 진화한 모델이지만, 성능에서 결코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점은 미국 내 한 시험 시설에서 촬영된 옆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위장을 한 프로토타입들이 현재 혹한의 아르예플로그, 뜨거운 암석의 유타 주, 또는 영국 이스트너의 특수 설계된 테스트 시설 등 세계 도처에서 극한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다.

차량은 분명 목적성이 뚜렷하고 내구성이 강한 디자인과 독보적 전지형 성능을 갖춘, 새 세대를 위한 전지형용 차량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디펜더 특유의 방식, 즉 차분하며 확실한 강인함으로 삶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만능의 여유만만함 또한 갖추게 될 것이다. 이제, 더 뉴 디펜더가 출시될 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원라이프> 다음 호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준비를 하시길. □



PHOTOGRAPH: NICK D'AMIELLE



S M O O T H



Vehicle shown in Nolita Grey colour exclusive to First Edition

O P E R A T O R

이미 도시의 아이콘이 된 이 오리지널 럭셔리 시티 SUV가 새롭게 진화한 모습을 드러냈다.
디자인 마스터피스로서의 입지를 강화했고, 지속가능성과 성능의 새 기준을 세웠다



런던에서 상하이까지, 이제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차량이 되었다. 이 차량이 정말로 얼마나 획기적인 자동차인지를 망각하기가 쉬어진 것이다. 혁명적인 LRX 콘셉트 카에 충실한 디자인으로 기획된 오리지널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2011년 출시 즉시 폭발적 반응을 일으킨 대 히트작이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랜드로버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꾼 진정한 게임 체인저였음이 밝혀진다.

눈길을 돌려세우는 디자인, 럭셔리,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 이 모두에서 완벽한 균형을 갖춘 이보크는 이상적인 도시형 SUV이라는 새 시장을 개척하며 신세대 고객들을 끌어 모았다.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디자인은 (단 1, 2년만 지나도 신 모델을 다수가 낡은 것처럼 보이는 자동차 세계에서는 이례적인 특징이다) 이보크를 지난 10년간 자동차 산업 내 최고 성공작 중 하나로 만든(누적 판매량이 거의 80만대에 이른다) 공신 중 하나다. 이 차량은 랜드로버 브랜드도 변신케 했는데, 랜드로버는 브랜드의 전설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보크 이후 제작된 모든 신 모델의 핵심에 이보크의 디자인을 고집했다.

동의하시겠지만, 모든 것에서 꽤나 과감한 본보기 행동이었고, 이것이 바로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게임의 차원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외관 디자인은 즉각 인지되는 오리지널 차량 형태를 근간으로 했지만, 특유의 실루엣에서는 미묘한 진화가 있어서, 날렵한 루프 라인과 솟아오르는 허리라인이 이를 말해준다. 플러시 도어 핸들, 초슬림 매트릭스 LED 전후방 램프* 그리고 압도적인 방향 지시등*을 갖춘 외관은 완벽 그 자체다. 고급스러우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인테리어는 크바드라트(Kvadrat) 올 혼방, 디나미카(Dinamica) 스웨이드 가죽 같은 화려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소재들로 정성들여 제작되었다.

평온한 웰빙의 감각은 공간 확장으로 향상되었다. 즉, 차량 사이즈는 컴팩트한 4.37m에 불과하지만 뒷좌석 승객용 공간은 80%, 트렁크 공간은 10% 더 넓어진 것이다.

실내 역시 최첨단 커넥티비티 및 인터페이스 기술**로 스마트하게 구성되었다.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가 고객의 스마트폰에, 4G Wi-Fi* 핫스팟이 인터넷에, 인콘트롤 리모트(InControl Remote)가 차량에 각기 접속하며, 트윈 터치스크린인 터치 프로 듀오(Touch Pro Duo) 시스템*이 신속하고 직관적인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킨다. 스마트 세팅(Smart Settings)*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운전자 선호하는 바를 자율학습하며, 여행 전에 차량을 예비시킨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 능동적 사고예방 테크놀로지 또한 완비되어 있다.

전면적 개편에 따라 새로운 아키텍처 테크놀로지가 구현되었고, 그에 따라 한결 더 부드럽고, 조용하며, 정교한 드라이빙이 가능해졌다. 인제니움 엔진은 가솔린과 디젤 양쪽으로 제공되며, 48볼트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옵션이 도입되었다. 진일보전 스탑-스타트 시스템(10mph 이하 속도로 달릴 때는 엔진이 자동으로 멈추고 배터리 파워로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은 효율적 연비를 보장한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3기통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과 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PHEV)도 2019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핸들 기능이 조정되어 더 많은 민첩성과 대응성을 구현하며, 이는 뻘뻘한 도시 거리 주행에 이상적이다. 이에 관해선 다음 페이지에 이어질, 자동차 저널리스트 켄 깁슨(Ken Gibson)의 (아테네에서의) 뉴 이보크 첫 주행기가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다. □

“캐릭터가 확실한 이 차량은 세련됨과 재미를 융합했고 이로써 모든 중요한 감정적 유대감을 만들어낸다”

게리 맥거번, 디자인 총괄 책임자



불가능한 가시성이라고? 이 경우는 예외

일련의 똑똑한 테크놀로지의 도입으로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가시성이 향상되었다.

세계 최초의 클리어사이트 그라운드 뷰(ClearSight Ground View)* †† 는 카메라 이미지를 상단 터치스크린으로 전송하여 차량 전면 아래쪽 180°의 시야를 제공함으로써 보닛을 사실상 ‘보이지 않게’ 한다. 주차가 어려운 주차공간에서 주차하거나 높은 방지턱을 넘어가거나 거친 지형을 통과해야 할 때 유용한 기능이다. 랜드로버의 뉴 클리어사이트(ClearSight) 실내 백미러는 뒤편의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 문제 해결에 효력이 있다. 스위치를 가볍게 누르면, 거울이 운전자에게 차량 위편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차량 뒤 사물을 보여준다. 모든 화면이 보통의 25° 가시성을 두 배 높은 선명한 고화질로, 탁월한 저광량 가시성으로 제공된다.

*선택 사양. ** 차내 기능들은 가능한 사용이 안전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운전자에겐 인제니움 엔진에 대한 완전한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360 서라운드 카메라가 필요. †† WLTIP 연료소비수치 복합mpg(ℓ/100km): TEL: 6.3(44.9) TEH: 9.9(28.5) CO2 배출량 복합(g/km): TEL: 165 TEH: 224. 제공된 수치는 WLTIP의 수치이다. WLTIP는 승용차의 표준 연료 소비량과 CO2 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새로운 공식 EU 테스트로서, 연료 및 에너지 소비량, 주행거리, 배출량을 측정한다. 이 테스트는 실제주행에 가까운 수치를 산출하도록 설계되었다. 운전 장비, 주행 상태도 테스트하며, 보다 엄격한 시험 절차로도 테스트한다. TEL(테스트 에너지 낮음), TEH(테스트 에너지 높음) 수치는WLTIP 테스트 하의 주행거리와 배출량 범위를 표시한 것이다. TEL은 가장 낮은/경제효율성이 가장 낮은 수치(가장 무거운 옵션 집합)를, TEH는 가장 높은/경제효율성이 가장 높은 수치(가장 가벼운 옵션 집합)를, TEL은 가장 낮은/경제효율성이 가장 낮은 수치(가장 무거운 옵션 집합)를, TEH는 가장 높은/경제효율성이 가장 높은 수치(가장 가벼운 옵션 집합)를 각각 가리킨다.



플러시 도어 핸들부터 슬림라인
헤드램프까지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모든 요소들은 더
세련되어진 디자인에 기여하는
반면, 그 독보적인 실루엣만은
유지한다





G R E E K G O D D E S S

전통과 현대성을 활력과 융합한
더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도시 정글 생활을 위해 제작되는 차량이다.
시간을 잊은 도시, 아테네에서
이 모델이 정말 소문만큼 믿음직한지
시험 운행해보았다

STORY KEN GIBSON
PHOTOGRAPHY MICHAEL SCHNABEL



풍부한 전통과 현대적 면모를 아테네만큼이나 블랜딩하고 있는 도시는 드물 것이다. 유럽 문화의 발원지이자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의 고향인 이 도시는 과거의 영광에만 폭 젖어 있는 것 같지만, 최신식 스타일과 에너지가 분출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SUV 세계를 뒤흔들었고 랜드로버를 글로벌 디자인 리더로 탈바꿈시킨 첨단 자동차 아이콘인 더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시험 운행해볼 장소로서는 완벽한 조건인 것.

아크로폴리스가 세계의 건축과 문화를 조형했다면, 시리즈 1 랜드로버는 자동차 산업계 내의 격식이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과거 건축의 아이콘들과 더불어, 오늘날 아테네의 지평선을 행복하게 공유하고 있는 번쩍번쩍한 현대식 건물들의 행렬이 잘 일러주듯, 세월은 늘 변하는 법이다.

오리지널 이보크를 선보이며 랜드로버 브랜드는 ‘시간을 타지 않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디자인 제품을 제시했다. 출시 당시부터 너무나 완벽한 차량처럼 보여서 오직 스마트한 진화만이 필요했던 차량이었다. 또한 누구라도 이보크임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외관이었다.

처음 더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봤을 때, 이번에도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고객이라도 발휘하며 군중들 사이에서 즉각 돋보이는 차량을 만들어냈음을 곧바로 알아챈 수 있었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서울 펄 실버 (Seoul Pearl Silver)’ 색상은 이미지에 민감한 고객이라도 만족할 만한 옵션 색상이다. 다른 레인지로버제품군과도 동급인 것. 만족할 여러 외장 색상 옵션 중 하나다. 외관상의 변화는 미묘한 수준이지만, 울트라 슬림 LED 전조등과 그릴, 플러스 도어 핸들, 우아하게 모서리를 감싸는 리어 램프 등 눈길을 끄는 디테일들은, 차량이 더 세련되어졌고 성숙해졌다는 느낌을 준다.

외관이 진화를 보여준다면, 실내에서는 재료, 기술, 럭셔리의 혁명을 발견하게 된다. 더 뉴 이보크는 모든 면에서 레인지로버다운 차량이다. 다른 레인지로버제품군과도 동급인 것. 시트부터 계기판, 도어까지 모든 것을 덮은 온화한 질감의 가죽*부터 (가죽 트림이 아닌) 혁명적인 프리미엄 친환경 섬유인 크바드랏(Kvadrat) 옵션까지, 고객의 손에 닿는 건 무엇이든 럭셔리 느낌으로 다가온다.

즉시의 커넥티비티, 최첨단 테크놀로지는 모든 현대식 자동차들이 갖춘 필수 사항. 더 뉴 이보크의 계기판과 중앙 콘솔에는 더블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멋지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실내에 청결감, 완벽한 정리감, 논리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운전자와 승객은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에, 또한 6개의 USB 단자와 4G Wi-Fi* 핫스팟에 연결된다.** 나는 나만의 음악 재생 목록에 바로 접속해 음악 감상을 즐겼다. (현지 라디오는 내 취향에는 잘 맞지 않았던 것)

아테네의 이른 아침, 혼잡한 거리를 향해 출발했을 때 가장 먼저 인지된 건 놀라울 정도로 고요한 이보크의 실내였다. 그건 럭셔리한 평온함의 오아시스, 그 자체였다. 실내 소음의 부재는 방음과 세련화를 위해 랜드로버가 이룬 의미 있는 개선들을 말해준다.

내가 운전한 모델은 2리터 터보차지 가솔린, 디젤 버전들이었는데, 두 모델 모두 부드럽고,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9단 자동 변속장치는 우아해서, 더 스포티해진 전통적 기어 레버가 오리지널의 회전식 시프트 레버를 대체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확연한 커다란 진보는, 랜드로버 역사상 최초로 가솔린, 디젤 엔진 모두에, 보통은 감속 시에 손실될 에너지를 붙들어 소형 배터리 안에 저장하는 시스템인 48V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소유주에게는 보너스도 주어진다. 이 에너지를 다시 빼내 엔진 가동에 보조

에너지로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연료 소비량과 CO2 배출량이 저감되기 때문이다. 3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되는 완전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성인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확장된 뒷좌석 공간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한편 트렁크 공간도 591리터로 넓어졌는데, 두 개의 대형 여행 가방을 넣기에 넉넉한 부피다. 그런데 기발한 건, 이보크의 전체 사이즈는 동일하게 컴팩트하다는 것, 즉 단지 휠베이스만 더 길게 만들어 이처럼 공간 확장을 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러시아워 시의 뻥뻥한 차량들 사이를 쉽게 빠져나가고, 좁은 공간에서도 편히 주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느

“외관이 진화를 보여준다면, 실내에서는 재료, 기술, 럭셔리의 혁명을 발견하게 된다. 더 뉴 이보크는 모든 면에서 레인지로버다운 차량이다”

*Optional features. **In-car features should be used only when safe to do so. Drivers must be in full control of the vehicle at all times.



좁은 골목길부터 주요 도로까지, 더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도시를
집처럼 편하게 만들어준다. 적은 탄소발자국, 호화로운 객실,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 덕분이다





도시에서든 커다란 자산이고, 모든 이들이 서두르는 듯한, 차량의 바다를 어럽사리 통과해야 하는 아테네에서는 확실히 그렇다. 다행히, 차량들의 느린 행렬은 도시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필수 방문 코스인 성스러운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을 향해 갈 때, 내가 사용한 네비게이션은 훨씬 색시해지고 진화된 네비게이션 프로(Navigation Pro)* 시스템이다. 심지어 이 시스템은 거대한 폐허들에 가려져 있던 찾기 어려운 주차 공간으로 나를 곧장 데려다 주기까지 했다. 아크로폴리스의 규모는 그 자체로 숨을 멎게 할 정도로 거대해서, 버스로 이동하는 단체 관광객들과 그 순간을 함께 해도 독특한 경험의 감동만큼은 줄어들지 않았다. 관광지들을 실컷 감상하고 나서,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의 이야기 소리가 시끌벅적한 한 레스토랑에서 요새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리스 전통 음식, 무사카(moussaka)로 막간의 점심을 즐겼다.

다시 이보크를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다. 무질서한 좁은 골목길들을 조심조심 나아가자, 차량 제작진이 승차감과 핸들 조정감 모두를 제대로 향상시켰다는 점이 분명히 느껴졌다. 정말 운전하기 너무 편하고, 마음이 놓이는 차량이다. 북적이는 시그로 에비뉴(Syngrou Avenue)로 향하는 길,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도심 구역인 메탁솔기호(Metaxourghio)를 지나갔다. 이곳은 쇼핑객들이 최신 패션과 미식을 탐닉하는 곳으로, 유명세를 얻은 지역 예술가 손케(Sonke)의 독특한 작품을 비롯하여 여러 매력적인 거리 예술로 유명한 곳이다.

도시의 정체된 차량 행렬에서 빠져 나와 이차선 도로에 올라섰을 때, 더 뉴 이보크에 얼마나 많이 개선이 있었는지, 특히 차량의 디젤 엔진이 얼마나 조용한지 완전히 인지되기 시작했다. 이보크 차량은 도시 정글에서 사용하기 편한 차량일 수도 있지만, 교외에서의 고요한 질주 또한 그에 못지않은 행복을 제공한다.

그리고 모험의 맛을 아는 차주에게 확실히 이 차는 진정한 랜드로버이기도 해서, 다른 경쟁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오프로드 주행 능력의 보유자이기도 하다. 장려한 카타피기오(Katafygio) 산맥의 험난한 암석 길을 오를 때는 그 어떤 지형도 뚫고 갈 수 있는 이보크의 전자동 지형 반응(Terrain Response) 2* 시스템의 경이로운 능력이 떠올랐다.

이 길은 두 개의 획기적인 테크놀로지를 시험해볼 기회도 주었다. 클리어사이트 그라운드 뷰(ClearSight Ground View)*†는 차량 전면 아래에 있는 사물을 180° 보여주는 카메라가 특징. 마치 보닛을 투시해 보는 듯한 기분으로, 오프로드 주행 시 또는 높은 방지턱을 넘어야 할 때 안정맞춤이다.

다른 하나는 클리어사이트(ClearSight) 실내 백미러*다. 이전 에디션 이보크는 뒤편 창이 좁아서 뒷좌석에 짐을 싣더라도 하면 차량 뒤편의 사물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이 신모델에서 실내 백미러는 카메라를 활용해 뒤편의 장면을 선명히 보여주는 고화질 비디오 스크린으로 변신해 있다.

직접 주행하는 경험을 충분히 즐겼기에, 고용 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해주는 기회가 오기만 하면 찻싸게 뒷좌석에 앉아 있는 느낌을 음미해보았다. 머리 쪽 공간과 무릎 공간이 훨씬 넓어진 뒷좌석은 평온한 공간이었다. 마르코 폴로 고속도로(Marco Polo Highway)를 따라 이동할 때는, 위대한 탐험가라면 필시 멋진

여행 동반자로서 더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찬미했으리라는 느낌을 찾아왔다.

운전대를 잡았던 이들간은 내게 하나의 확신을 심어주었다. 만일 오리지널 이보크가 게임 체인저였다면, 뉴 에디션은 다시 한 번 기준을 높여 놓았다. 이 모델은 훨씬 더 고급스러우며, 세련미를 더한, 기술적으로 진일보된 차량이고, 주행에 더 능하며 외관은 더 멋지다. 레인지로버가 낳은 아이는 성장을 거듭하여 오리지널 이보크를 탁월히 재상당한 모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의 새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

“이차선 도로에
올라섰을 때,
더 뉴 이보크에
얼마나 많이
개선이 있었는지,
특히 디젤 엔진이
얼마나 조용한지
완전히 인지되기
시작했다”

「NEW LONDON」

더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론칭 캠페인의 얼굴 애드와 아보아
(활동가이자 패션 모델), 자신이 왜 도시에서 사는지를 말한다

“제가 만났던 런던 시민들은 모두 힘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유머 감각, 모든 상황을 파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죠.” 애드와 아보아(Adwoa Aboah, 26)의 말이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에게도 예찬될 만한 것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클래스의 수퍼 모델인 그녀는 세계적 패션 캠페인 활동(몇 개만 거론한다면 디오르, 켈빈 클라인, 마크 제이콥스)만큼이나 독특한 외모와 활동가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패션쇼에서, 가장 유명하게는 펜디, 샤넬 패션쇼에서, 쇼 자체를 일순간 정지하게 하는 그녀의 존재감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보그> 지 재발매호의 커버 모델을 비롯하여 술한 잡지에 표지 모델이 되었고, 2017년엔 영국 패션 위원회가 수여하며, 모두가 탐내는 상인 ‘올해의 모델 상’을 수상했다. “어릴 적 살던 집(웨스트 런던 소재)에서 아이들과 놀며 여름을 보내던, 거의 언제나 롤러블레이드 타던 시절”에서 아주 멀리 걸어온 것이다.

짧게 깎은 머리, 보석 장식을 한 앞니, 당당한 태도가 이채로운, 반은 가나(Ghana) 인이며, 서아프리카에서 월요일에 태어나는 여자 아이들에게 종종 붙이는 이름을 가진 아보아는 오늘날 패션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의 주인공이다. 모델 일로 세계를 여행할 때나 걸스 토크(Girl's Talk, 그녀가 공동 창립자이다) 일로 젊은 여성들과 협업할 때, 방문하게 되는 도시에서 독특한 장소들을 찾아가는 그녀의 습관도 쉽게 이해가 되는 이유다.

“저만의 환상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면, 런던의 포토펬로 시장(Portobello Market), 골본 로드(Golborne Road), 멕시코 시티의 식당들, 도쿄의 빈티지 숍과 가라오케 바(bar)들, LA의 넓은 도로들로 그 도시를 채우고 싶네요.” 그녀의 말이다.

아보아는 영국 서머셋(Somerset)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 “도시와 시골 생활을 다 경험해서 운이 좋았지만, 늘 런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었죠! 지금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새로운 장소와 사람들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런던 밖으로의 짧은 산책은 언제나 대환영이죠.” 시골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현재는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지내고 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런던은 제 고향이자 제 정체성의 아주 커다란 부분을 차지해요. 저는 영원히 런던러(Londoner)로 남을 거랍니다. 도시의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너무나 활기 넘치고, 무언가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이죠.”

패션은 아보아의 핏줄 속에 있는 무언가다. 어머니 카밀라 로우더(Camilla Lowther) 씨는 창의적 경영 회사인 CLM의 창립자이고, 아보아가 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건 겨우 16세 때였다. 언니 케세와(Kesewa) 역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최근 광고에 출연하기도 한 모델이다.

언니와 가까운 만큼이나, 혼자만의 순간을 음미한다고 아보아는 말한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넷플릭스를 엄청 보고요, 독서도 하죠. 런던 시내를 산책하며 사람 구경하기를 즐기고요. 런던엔 정말이지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운전대를 잡고 도시를 돌아다니는 게 사람들을 알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아보아는 생각한다. 그녀의 드라이빙 열정을 보면 더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론칭 캠페인에 출연하기로 한 그녀의 결정에 각별한 진정성이 어렸음을 알 수 있다. “주행해보면 정말이지 놀라운 차예요. 지속가능성에의 의지가 무척 맘에 드네요.” 차량이 제공하는 천연 소재 옵션, 하이브리드 전기 동력 옵션에 관한 말이다.

늘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 자신이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까? “친구들 또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죠. 그들과 같이 있을 때면 언제나 집에 있는 듯 마음 편해요.” 그녀가 어디를 가든 런던의 영혼이 그녀와 함께 한다는 것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다. “런던의 한 가지 가장 특별한 요소는 도시가 지닌 거대한 다양성이죠. 바로 그 다양성 덕분에 다른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과 이해심을 익힐 수 있고요.”

그녀가 정글 같은 도시 생활을 향해해갈 때 이러한 훌륭한 가치들이 그녀를 인도해주고 있으니, 애드와의 별 또한 앞으로도 어김없이 계속해서 떠오를 것이다. □







D E S I G N E D F O R

레인지로버 벨라, 시간을 초월한 세기 중반의 모던 디자인 건축물을
탐방하다: 저명한 캘리포니아 현대 건축가 리처드 뉴트라가 지은,
몇 안 되는 유럽의 주택 중 하나가 바로 그곳

STORY LUKE PONSFORD
PHOTOGRAPHY GREG WHITE



“뉴트라 디자인의
한 가지 주요 원칙은
실내와 실외 사이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다.”

독일 서부에 위치한 노스 라인 베스트팔리아(North Rhine-Westphalia) 주 소재 부파탈(Wuppertal). 도시의 2/3가 공원과 숲 지대인 이곳은 독일 내에서 가장 푸른 도시로 꼽힌다. 쾌적한 곳이지만 어쩐지 애써 언급할 만한 곳은 아니라는 느낌도 준다. 또한 20세기 중반 현대 건축의 대표적인 샘플을 (로스앤젤레스 어느 협곡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거나 캘리포니아의 사막, 단조로운 암석들과 뾰족뾰족한 선인장들 사이에 안치된 은빛 유리나 철제로 된 건축물 같은 것 말이다) 보기 위해 당신이 찾아갈 장소는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부파탈 중심부에서 출발하여 짧은 드라이브를 마치고 (우리의 럭셔리한 레인지로버 벨라 안에서 더 긴 여정을 즐기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구불구불한 숲길로 들어가 보면, 독일 서부 지역의 이 소박한 구석에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된다. 뾰뾰한 나무와 덩굴들 뒤에 숨은, 전설적인 현대 건축가 리처드 뉴트라(Richard Neutra)가 지은 단 8개의 주택 중 하나가, 불쑥 나타나는 것이다.

현대 건축계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인 뉴트라는 오스트리아 태생으로, 1920년대 초반 LA로 이주한 사람이다. LA의 탁 트인 넓은 공간들, 풍부한 일조량, 자유로운 분위기에 끌렸던 것이다. 이상주의적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밑에서 잠깐 일했고, 1929년엔 자기만의 고유한 작업을 시작했다. 뉴트라가 LA에 러벨 헬스 하우스(Lovell Health House)를 설계하고 지었던 것은 바로 이 기간으로, 이 건축물은 아직도 20세기에 지어진 주택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초창기 초고층 기술을 기초로 건축되었고, 미국 최초의 강철 소재 주택인 러벨 하우스는 건축계 내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건물이다. 또한 뉴트라에게 국제적 명성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하다.

그 뒤 40년간 뉴트라는 아들 디온(Dion)과 종종 공동으로, 300채 이상의 집과 건물들을 설계 및 건축했는데, 이 건축물들 중 대부분은 미국 서해안에 자리 잡고 있다. 조명과 경관에 아낌없는 투자를 한 디자인들로, 뉴트라는 건축 과정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수용하는 것에 큰 주의를 기울였다. 고객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지? 그들이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교제했더라? 그들이 무얼 보고 듣고 싶어 했었지?

실제로, 뉴트라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은 실내와 실외 사이를 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실내 공간과 테라스 공간을 슬라이딩 유리 통창으로 구획하는 식인데, 바깥 환경을 실내로 들여오고 거꾸로 실내를 바깥으로 끌어내려는 시도인 것. “자연과의 만남”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뉴트라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싶군요.” 92세의 나이로 LA에서 뉴트라 회사를 아직까지 경영하고 있는 디온 뉴트라가 미소를 머금은 채 입을 열었다. “우리 회사 디자인의 핵심은 자연과의 만남을 재정립하는 것이지요.”

‘자연과의 만남’을 재정립하기. 이러한 제안은 당시 유럽 내에서라면 약간은 걸끄럽게 여겨질 제안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1960년과 1970년 (리처드 뉴트라의 사망년도) 사이 뉴트라 부자는 스위스에서 4채를, 독일에서 3채를, 프랑스에서 1채의 집을 각각 공동 설계 및 건설했다.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살 집을 설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디온의 말이다. “그 요청을 촉발시킨 계기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설계한) 이 모든 (유럽 내) 건축물들은 바로 이들, 즉 우리에게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작품을 좋아했던 몇몇 건축주들의 최초 의뢰의 결과물들이었죠.” →

오른쪽: 집주인들인
맨프레드 헤링과 사라 헤링은
캠퍼 하우스의 실내를
자신들의 특별한 디자인
미학에 맞게 꾸었다







왼쪽: 물이 가득 찬 일련의 수영장들은 캠퍼 하우스가 주변 산림 지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말해준다

최초의 의뢰자들에 속하는 캠퍼(Kemper) 씨 부부는 부파탈에서 잘 나가는 한 코르셋 사업체의 운영자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미국 ‘서부 해안’ 라이프스타일에 꽤나 심취해있던 이들이었다. 1963년 이들이 뉴트라에게 연락을 해왔고, 뉴트라는 부파탈 내의 적절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4만m²의 공사 부지가 결정된 뒤, 1965년 착공해 1968년 8월까지 공사가 계속되었다. 완공된 380m² 규모의 주택은 6개의 침실, 전부 유리로만 된 벽들과 몇 개의 큰 벽난로, 그리고 현재의 집주인인 맨프레드 헤링(Manfred Hering)의 사무실 역할을 하고 있는 ‘신사의 방’, 오 페어(au pair) 룸 같은 특색 있는 공간들을 자랑했다.

2016년 이 집을 구입한 헤링은 처음 건축될 당시의 사양으로 현재의 집을 복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구매했을 당시는 약간 부티크 호텔 같은 모습이었죠.” 50세의 클래식 차량 복원 전문가이자 미드센추리 모던 스타일의 열렬한 팬인 헤링의 말이다. “온통 회색과 베이지색뿐이었어요. 이전 주인들이 계속해서 목재에 페인트칠을 했더라고요. 건축 자재들을 살살이 살펴봤어요. 책도 구매했고, 이전 주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죠. 집 전체를 원래 시대의 모습으로 바로잡으려고요. 처음 지었던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복원된 것처럼 보이지도 않게 하려는 의도였죠.”

캠퍼 하우스는 수목들이 우거진 언덕 꼭대기 쪽에 멋지게 들어 앉아 있는 모습이다. 거실(중앙의 2층 골조에 연결되는 유리로 된 부분)의 프레임은 처음 제작될 때의 통창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통창들 덕에 햇빛은 놀라울 정도로 ‘살기 좋은’ 메인 룸으로 들어온다. 한편, 건물의 천장 부분은 유리 구조물을 따라 집 안에서 바깥으로 일관되게 연결된다. 건물 옥상, 테라스 뒤편에 있는 물이 가득 찬 수영장은 주변의 나무들과 덩불을 반사한다. 이 모든 것이 캠퍼 하우스가 주변 자연과 맺는 관계를, 즉 건물의 ‘자연과의 만남’을 잘 말해준다.

실내의 오리지널 가구와 물건들은 (아네 제이콥슨 에그Arne Jacobsen Egg 의자, 크놀Knoll 소파, 팬턴Panton 셀 램프) 1970년대 중반의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해준다. 이 시대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냉방 가능 독일산 스포츠카 때문에 헤링이 가장 좋아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캠퍼 하우스는 보기 드문 모더니즘 기념물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생활이 가능한 집이다. 뉴트라가 의도한 바대로의 공간인 것이다. 그는 건축 비평가가 아니라 거주자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매혹적이고 편안한 곳으로, 집에 온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건물 바깥, 테라스에 주차된 레인지로버 벨라도 집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 두 디자인 사이에는 수십 년이라는 간격이 있지만, 캠퍼 하우스도 벨라도 최소주의라는 디자인 철학을, 우아한 단순성을 공유한다. 캠퍼 하우스처럼, 벨라의 디자인에는 여분의 것이 전무하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부재한다.

이 ‘아방가르드’ 레인지로버의 청결하고 깔끔한 운전석에 앉아보니, 마치 미래를 방문한 듯한 느낌이 든다. 1968년 여름, 자신들의 새 집 안쪽으로 들어섰을 때, 캠퍼 부부 역시 필시 동일한 느낌에 젖었을 것이다. 공간, 조명, 전반적으로 절제된 건축. 당시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

“좀 더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았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맨 처음 지어졌을 당시의 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이 제 영혼을 되찾은 셈이지요.” 맨프레드의 말이다. “영원한 저의 집이지요.” 그가 웃었다. “저는 꼭 이곳에서 죽을 겁니다.” 그리고 독일 서부의 질푸른 어느 언덕에 동지를 튼, 이 호화로운 그러나 약간은 이곳과 조화롭지 않은, 별 종은 캘리포니아 남부 양식의 한 조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넉넉히 이해된다. □



R E T U R N T O T H E

N

I

L

E

할리우드 배우 조셉 파인스와 전설적 탐험가 라놀프 파인스 경이 한 팀으로
뭉쳐 이집트 횡단 여행을 떠났다. 동반자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였다.
<원라이프>는 이들을 따라 잡아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믿기지 않는 장관,
위험한 생물, 모래 언덕 주행의 고난 등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STORY GEOFF POULTON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좁은 터널을 기어서 통과하기, 장대한 모래 언덕을 빠르게 주행하기, 뱀이나 전갈들과 맞닥뜨리기란 (어느 TV 쇼를 촬영하며 그렇게 하기란) 사촌을 알아가는 방법 치고는 꽤나 이색적인 방법으로 보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라눌프 파인스 경(Sir Ranulph Fiennes) 같은 유명한 탐험가 사촌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TV 쇼 <핸드메이즈 테일(The Handmaid's Tale)>의 스타이자 헐리우드 배우 조셉 파인스(Joseph Fiennes)에게, 라눌프(Ran) 경과 함께 하는 이집트 탐험이란 멋진 아이디어 같았다. 일생일대의 꿈을 이루는 한편, 곁출한 인물이지만 정작 자기는 아는 바가 거의 없는 사촌 형을 좀 더 가까이에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았던 것. “하지만 돌연 그곳에 당도해 보니 그런 생각은 현실에 압도되어 버리더군요. 준비가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말이다. “당시 제 심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도착했을 때는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그곳에서 그의 불안감을 알아챈 이가 있었는데, 2019년 봄 방영된 3부작 TV 시리즈를 촬영 중이던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제작진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 촬영 팀은 파인스 팀과 여정을 함께 하게 된다. 파인스 팀의 행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빅토리아 호수(Lake Victoria)에 이르는, 나일 강을 따라 가는 램(Ran)의 1968년 탐험 행로 중 일부 구간을 다시 밟아가는 길이었다.

<원라이프>가 두 파인스 씨들을 따라 잡아 만났을 때, 두 사람은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은 에피소드들과 함께 이집트에서의 촬영 경험을 기분 좋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둘은 청중을 매혹하는, 때로는 경이로운 2인 연기의 주인공들이었다. 램의 역할은 자기 비하적 성격의 차분한 모험가, 조의 역할은 달변가이자 익살꾼 배우였다.

종종 현존하는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탐험가로 불리는 램은 남극, 북극 모두를 탐험한 사람이다. 또한 그는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했고, 7개 대륙에서 마라톤을 했으며, 동상에 걸린 손가락의 일부를 잘라내기도 했다. “대비가 되는데, 제 경우는 공포감에 가장 근접했던 순간이 관객 1~2백명이 운집한 무대에 섰을 때였습니다.” 48세의 조의 고백이다. “램이 어린 자기 사촌에게 크게 실망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죠.”

74세의 램이 곧 입을 열었다. “난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 ‘다 늙어빠진 노인네가 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라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고.”

조에게 이 여행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볼 기회였다. “내 한계점이 어딘지 알아볼 기회”이자 “가족 내에서 거의 신화적인 인물”을 만나볼 기회, 그리고 “그의 믿기지 않는 업적을 가능케 했던 동력이 무엇인지 알아볼” 기회 말이다. 램에게 이 여행은 소중히 간직된 기억의 장소들을 재방문하고, 새로운 장소들을 탐험해볼 기회였다.

램이 감행했던 숏한 여행에서처럼, 램드로버는 이번 파인스 씨들의 모험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팀에 합류한 또 하나의 다재다능한 모험가는 다른 아닌 램드로버 디스커버리였던 것. 이름표를 달고 세상에 나온 후 30년간, 디스커버리는 램뿐 아니라 무수한 유명 탐험가들과 팀들,

그럴 듯한 명분을 갖춘 모험가들이 그들의 힘겨운 세계 탐험을 성공리에 끝마치도록 해주었다. 그러한 탐험 가운데에는 2012년 버밍엄을 출발해 베이징에 닿았던, 100만 번째 디스커버리 차량의 기억할 만한 여행도 있었다.

조 파인스가 이집트 사막의 웅대한 모래 언덕들을 달리며 오프로드 드라이빙의 묘미를 생애 처음 맛본 것도 디스커버리 차량 안에서였다. “자네도 알지만, 사실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는 잠시 기록 했었지.” 무덤덤한 목소리로 램이 말했다. “네, 다시 한 번 사과드릴게요.” 조가 응수했다. “거대한 모래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램이 ‘더 빨리!’라고 말하더군요. 꼭대기에서는 속도를 낮춰야 했는데, 전력질주를 해버렸고, 그 바람에 봉 떠서 반대편으로 떨어졌어요. 차량도 탑승자도 순간 전부 뒤흔들렸죠. 하지만 램은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더라고요.”

카이로 인근에서 가졌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전 준비 행사에서 두 사람이 만났던 독사, 전갈, 독거미들 앞에서도 램은 태연했다. “램은 공포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탐험 중 제 쪽으로 다가오는 무엇이든 대처할 능력이 제게도 있다는 걸 램에게 증명하는 것. 제가 원했던 건 오직 그것뿐이었죠.” 조의 말이다. “그래, 하지만 자네는 꽤 잘 했었어, 정말이야.” 진지한 목소리로 램이 응답했다.

두 사람은 최근 발견된 알 민야(Al Minya) 인근의 무덤에 접근하기 위해 높이가 겨우 0.5미터인 터널을 기어가던 일화를 추억했다. “조는 운동 신경이 뛰어나고 유연하답니다. 녀석의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군요.” 램의 말이다. “만일 녀석이 무서움을 느꼈다 해도, 그걸 내색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흡사,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죠. 수천 년간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미라로 가득 찬 그 방을 처음 보는 특권이었으니까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여행 전체가 충분히 가치 있었어요.”

조는 내면의 예술가적 충동도 만족시킬 수 있었다. 인디아나 존스 스타일의 모험과는 대비를 이루어, 느긋한 품으로 그는 가능한 모든 순간마다 스케치북이나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어슬렁대거나 야와 시장 어디선가 길을 잃거나 또는 5분간 잠시 앉아서 이집트의 아름다움을 즐겁게 담아냈죠.”

그레이트 피라미드(Great Pyramids)부터 아부 심벨(Abu Simbel)의 사원들까지, 평생 마음에 간직될 장면을 보고, 또 그런 경험을 했다고 조는 고백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사촌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 끈기 있게 지속하며 한계를 극복하는 행동의 힘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다는 것이다.

램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그거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배워라면 이렇게 행동하겠지 하는 선입견이 제게 있었다면, 조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모든 걸 가족 DNA에 맡겼죠.”

램드로버 디스커버리는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간, 훨씬 먼 곳을 향해 떠나는 탐험에 착수할 것이고, 그렇다면 또 다른 파인스 가족들이 모험을 떠날 기회 역시 남아 있을 것이다. □

 **WATCH THE EPISODE** 파인스 가족의 이집트 여행을 다시 보려면: natgeo.com/worldsgreatestexplorer 를 방문하십시오



“랜은 공포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탐험 중 제 쪽으로
다가오는 무엇이든
대처할 능력이 제게도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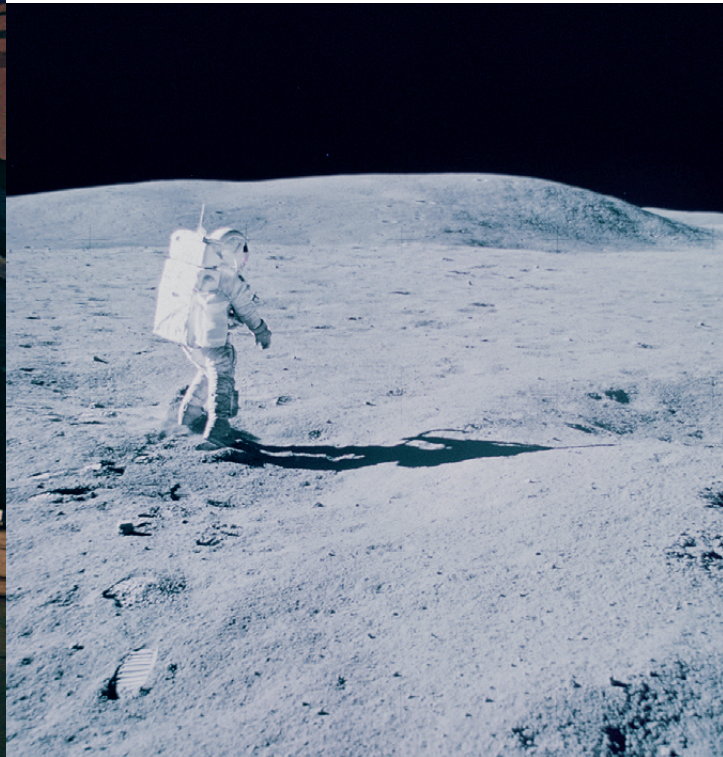
M O O N L I G H T S O N A T A

최초의 달 착륙 후 50년이 지난 지금 <원라이프>는
한 명의 놀라운 인간을 만났다. 천국의 음악을
들었던, 그 선율에 맞추어 여전히 춤을 추고 있는
어느 우주 탐험가. 달이라는 또 다른 세계에 첫
발을 디뎠던, 현재 지구에 생존하고 있는 4명 중 한
명인 찰리 듀크가 바로 그 사람이다.

STORY VAISHALI DINAKARAN
PHOTOGRAPHY DANIEL AUF DER MAUER



왼쪽 그리고 위: 자신의 미션 패치를 자랑스럽게 과시하고 있는 듀크
아래 왼쪽: 아폴로 16호의 동료 승무원들인 토마스 매틸리, 존 영과 함께 있는 듀크(왼쪽)
아래: 또 다른 세계를 걸었던 열 번째 인간



찰리 듀크(Charlie Duke)는 언제나 모험가였다. 억누를 수 없는 탐험욕구가 늘 그의 가슴 한 켠에 있었다. 캘리포니아, 코로나도 섬의 거대한 암석 구조물과 동굴들을 탐사했던 12세 소년 때도 그러했고, 83세의 노구로 사우쓰 캐롤라이나의 가족 소유지 내 야생지대를 거닐었던 지난 해 초도 그러했다. 또는, 가장 유명하겠지만, 1972년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발자국을 달의 표면에 남기며 달 위를 걸었을 때도.

우리는 취리히의 어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곳에서 듀크는 다른 생존자들인 단 세 명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모험담을 들려주었다. 그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고, 아폴로 16호와 함께 했던, 거의 50년 전의 저 서사시적 여행을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마저 느껴졌다.

“그때의 경험과 관련하여 잊히지 않는 기억은 그 모든 것이 경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꿈 같은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죠. 달 표면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단 12명 가운데 한 명이 되었던 경험 말이에요.”

자신이 조종한 오리온 달 착륙선에서 존 영(John Young) 선장의 뒤를 따라 내린 듀크는 그로써 10번째로, 당시 최연소의 나이로(36세) 달 표면을 걸은 사람이 되었다. 그때까지 걸었던 모든 걸음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걸음이었었고, 그 자신이 오래도록 소망하던 걸음이었다.

듀크는 그랜드 캐년(Grand Canyon)에서 나사(NASA) 지질학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곳에서 그는 침낭 속에 들어가 달을 바라보며 자신이 저기에 올라갈 날이 오게 될지 궁금해했다. 결국 그곳에 올랐을 때, 기쁨과 승리감이 한꺼번에 그의 가슴에 흘러 넘쳤던 이유다. 그의 발이 그 표면에 닿는 순간 그의 머리를 스치던 생각은 “지금 내가 달에 서 있다, 마침내! 달에 서 있다!”였다. 그가 웃었다.

탐사단이 달 탐사선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때, 즉 매끈한 바위 주변을 돌아가고, 분화구 그트머리에서 멈추고, 분화구 깊은 곳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바위를 조금씩 잘라내고, 나사가 연구하게 될 샘플을 채취했을 때,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과 경이롭다는 감정이 찾아왔다. “이 분화구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곳에서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이런 류의 경이, 모험, 흥분 말이에요!” 그 기억을 떠올려서인지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달의 표면만큼이나 매혹적이었던 건 우주 공간에서 바라본,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이었다. 이 광경은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고, 우리 각자의 조국이 어디든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있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듀크는 당시의 장면을 마치 어제인 것처럼 회상했다.

“세 가지 색이 있었어요. 대지의 갈색, 바다의 크리스탈 블루, 그리고 눈과 구름의 하양. 우주라는 암흑 속에 매달려 있는 지구라는 보석이었죠.” 암흑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부드러워 손을 뻗으면 거의 만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을 정도였다.

태양빛을 받아 빛나는 지구의 밝음 그리고 우주 공간의 어두움 간의 대비는 듀크 자신의 생애 그리고 그 자신의 여행에 대한 은유였을지도 모르겠다. 특히 지구로 돌아온 이후에 따라온 인생의 어두운 국면에 대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은 인생 동안 대체 무엇을 할 건데? 무엇이 미션인데?’”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다는 평온감 대신 어떤 불만감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자신을 달로 이끌었던 열정이 그의 내면에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마음의 혼란으로 인해 듀크는 거의 가족을 잃을 뻔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종교에서 평온을 찾으며 스스로를 치유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달 탐사 여행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신과의 여행, 이 두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세계 곳곳을 방문하기 시작한다.

“저의 열정을 누군가와 공유하기, 특히 젊은이들과 공유하기. 제가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 저의 책임이지요.” 그가 말을 이었다. “그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 즉 너는 앞으로 너의 인생이 너를 어디로 데려갈지 절대 모른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 말이에요.”

우주 여행에 대한 듀크의 관심은 여전히 깊는데, 스페이스(Space)X, 오비탈(Orbital), 블루 오리진(Blue Origin) 그리고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 같은 민간 기업들 간의 새로운 우주 경쟁으로 그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래에 무엇이 등장할지 제 눈에는

보이지요. 지구 궤도를 도는 거대한 거주형 비행선이 나타날 겁니다. 영속적 거주지를 갖춘 과학 정거장을 달에 건설하는 방안을 저는 지지한답니다. 우리가 결국엔 화성에 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확신에 찬 어조로 그가 말했다.

우주가 제공해마 마땅한 경이를 그 자신이 경험해서인지, 듀크는 유인 우주 비행이 가져다 주는 기술 성장만이 아니라 유인 우주 비행 그 자체를 강력히 옹호한다. 그는 유인 우주 비행이 근본적인 인간의 특성에서 발원한다고 믿고 있다. 발견하려는 끝없는 욕망 말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 내면에 어떤 강한 충동을, 무언가를 탐구하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주 여행은 우주와 우주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려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도록 도와주고요.” 이 80대의 전 우주비행사의 내면에서 이 욕망은 충분히 강렬해서 미소 지으며 이렇게 결론을 내릴 정도다. “가끔씩 그런데, 달로 되돌아가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젖는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내면에 어떤 강한
충동을, 무언가를
탐구하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주 여행은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도록
도와주고요”





T H E F I N A L F R O N T I E R

상업적 우주 비행을 하나의 현실로 만들려는 기업 버진 갤럭틱의
우주비행선이 이륙했다. 이제, 과거 그 어떤 티켓 소지인도 간 적 없는 곳으로
과감히 떠날 채비만 하면 된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 본 이래 지금까지,
인류는 미지의 거대한 외부 세계로의 탐험을 늘 꿈꿔왔다. 그런데
머지 않아, 국가 기관 소속 우주비행사만이 아닌 다른 이들도 우주
공간에서 지구의 운곽을 관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업 우주
여행의 새 시대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 여행을 단 한 번이라도 꿈꿨던 이들 모두가 우주의 경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지난 해 12월 13일, 모함 VMS 이브(Eve)와 우주비행선 VSS
유니티(Unity)가 캘리포니아, 모하비에서 이륙했다. 이로써, 우주
여행 사업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는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
사의 프로젝트는 커다란 도약을 하게 되었다. 모함에서 분리된 후
유니티의 비행사들은 60초간 로켓 모터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유니티는 음속의 약 3배의 속도로 발진했는데 이는 지구 대기권
밖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것은 중대한 이정표였다. 사상
최초로 상업적 승객 서비스를 위해 제작된, 승무원이 탑승한
우주선이 우주에 진입했고,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인정받아
상업 우주 비행 자격(Commercial Astronaut Wings)을 얻게
되었다.

승무원이 탑승한 로켓 추진형 우주선을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기란, 단순히 그것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것 이상의 일이다.
버진 갤럭틱을 후원하는 영국 사업가이자 자선가 리처드 브랜슨
(Richard Branson) 경에 따르면, 우주 여행의 민주화는 “우주를
모두에게 개방할 것이다. 또한 세상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
버진 갤럭틱의 미션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것인 셈이다. “우주는 미래의 교통을 위해서만 중요한 건
아니예요.” 상업 우주비행이 전세계의 이동성에 얼마나 대단한
영향을 미칠지 암시하며 버진 갤럭틱의 CEO 조지 화이트사이드
(George Whitesides)가 말문을 열었다. “우주는 미래의 상상력을
위해서도 중요하답니다.”

랜드로버 사는 2014년부터 버진 갤럭틱의 자동차 부문 독점
파트너로서 이 미션의 수행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모하비
소재 버진 갤럭틱 제작 및 테스트 시설 그리고 뉴 멕시코 소재
미래 우주 비행용 기착지인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Spaceport

America)에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운영 지원을 해온 것이다.
정기적인 상업 비행 서비스가 개시되면, 이 차량들은 우주비행 전
3일간의 준비 기간에 우주비행 훈련생들을 시설들 사이에서
이동시키는 등 우주비행사의 업무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비행 기간엔 비행사들을 기착지와 우주선 사이에서
왕복시키게 되며, 비행 완료 후에는 축하와 비행사 자격증 수여를
위해 충분히 숙달된 비행사들을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로
귀환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파트너십은 기본적 지원 외에 다른 지원도 포괄한다. 버진
갤럭틱 사와 랜드로버 사는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 교육에 중점을
둔 공동 STEM 교육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두
기업은 버진 갤럭틱 사의 우주 비행을 이미 예약한 600명의
예약자들(버진 갤럭틱의 ‘미래 우주비행사Future Astronaut’
커뮤니티 회원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영국과 전 세계의
랜드로버 익스피리언스 센터들에서 개최될 이 이벤트들은 먼
곳으로의 탐험을 지향하는 우주여행자들의 여행 준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성층권의 럭셔리

우주에 처음 닿게 되면, 육지용 차량은 한낱 보행자처럼
보일까? 걱정은 굴뚝이다. 최근 랜드로버 사는 럭셔리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 아이кон 성격의 디자인, 탁월한 엔지니어링을
향한 두 브랜드의 공통된 의지를 근간으로, 랜드로버 사의
스페셜 비히클 오퍼레이션 팀이 새로운 에디션을 제작했다.
바로 레인지 로버 애스트로넛 에디션(Range Rover
Astronaut Edition)이다. 밤하늘에서 영감을 얻은 독특한
다층형 페인트 컬러부터 우주선 유니티(Unity)의 목재
브레이킹 스킴을 소재로 만든 콘솔(차후 자기 우주선의
브레이킹 스킴을 소재로 만든 콘솔로 대체 가능)까지, 이
한정판 차량에는 맞춤형 기능과 특징들이 가득하다. 애스트로넛
에디션은 버진 갤럭틱의 ‘미래 우주비행사(Future
Astronauts)’ 프로그램에 등록된 이들을만 구매 가능하다.



E L E C T R I C D R E A M S

지금 셴젠 시는 미래 도시를 위한 청사진이 되겠다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선진화된 전기 교통
인프라 관련부분이 그러하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PHEV를 타고 이 혁신적이고 정력 넘치는 중국
메트로폴리스를 탐험해보았다





STORY **NATHANIEL HANDY**
PHOTOGRAPHY **STEFEN CHOW**

어느 거대한 자연 항구의 가장자리. 구름이 휩쓸 지나가는 고층 유리 빌딩 군단이 등지를 들고 있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많은 1인당 부(wealth)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이 나라의 경제 엔진 룸이 바로 이곳이다. 또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이곳이 이민자들의 도시라는 점일 것이다. 어딘지 귀에 익숙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곳은 20세기의 뉴욕이 아니라 21세기의 셴젠(Shenzhen, 셴젠, 심천)이다. 뉴 차이나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곳, 셴젠이다.

셴젠은 지난 해 말 40세가 되었다. 1978년, 덩샤오핑(등소평) 전 중국 총서기가 주도한 중국 개방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실험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다. 당시 인구 3만의, 조용한 어촌이었던 이곳이 선택된 건, 홍콩 금융 중심지 인근의 만(bay) 바로 건너편에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당신의 집에 있는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 대부분을 생산하는 단풍 공장 타운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화웨이(Huawei), 텐센트(Tencent), 알리바바(Alibaba) 같은 기술 대기업체들의 본거지이자 인구 1,300만 명의 메트로폴리스로 변신해 있다.

셴젠에서는 모든 일들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미래의 일 또한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지갑을 들고 다녔던 시점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이곳의 수많은 현지인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이다. 주차부터 식당, 가장 볼품없는 길거리 음식까지 모든 것을 스마트폰을 활용해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고층빌딩들은 아직도 숨막히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도시 어디에서든 높은 삶의 질이 뚜렷이 느껴진다.

거리의 깨끗하고 푸르며, 공원은 아름답고, 셴제너(Shenzhener)들은 대체로 문방식으로 자신들의 여가 시간을 즐긴다. 사람들은 쇼핑몰에, 기발한 창 의 구역인 OCT-LOFT, 미술관과 박물관에 몰려 다닌다. 또한 완벽한 쓰촨 식 향미와 베이징 스타일의 소고기 전골부터 스시와 파리지앵 커피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레스토랑들도 사람들로 붐빈다.

셴젠은 지속 가능한 도시 생활이 가능한 도시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제 저 탄소 도시 계획(International Low Carbon City initiative)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전기 차량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 해, 도시의 버스와 택시들 전체가 전기차로 변신했고, 도시의 EV 충전소 네트워크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수준을 자랑한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를 타보기에 이보다 더 나은 곳이 있을까? 미래, 즉 셴젠 스타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셴 젠 시 는 지 속 가 능 한 도 시 생 활 이 가 능 한 도 시 가 되 겠 다 는 목 표 를 세 워 다 . 이 도 시 는 전 기 차 량 인 프 라 분 야 에 서 세 계 를 선 도 하 고 있 다

시내 어디든 볼 수 있는 한 광고 문구.

‘일단 셴젠에 들어 왔다면, 당신은 셴제너다 (Once you come to Shenzhen, you’re a Shenzhener)’ 도시의 초개방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문구다. 새로 개발된 구역인 후하이(Houhai)에서, 소셜 스타트업 기업체 생자이 시티(Shanzhai City)의 탯 램(Tat Lam) 씨를 만났다. 후하이는 셴젠의 수많은 철강 및 유리 빌딩들이 아직까지도 말 그대로 솟아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철제 대들보, 공사용 안전모들 사이에서, 탯은 단 몇 십 년 만에 구축된 도시의 독특한 정체성을 이야기했다. “셴젠 시는 도시의 스타트업 버전”이라는 것이다. “혁신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도 얻을 수 없는 곳이지. 언제나 그 다음의 것을 찾는 곳이고요.”

이러한 에너지는 중국 전역에서 몰려온, 모두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도모한 사람들이 혼용된 결과물이다. 최근에는, 수제 맥주부터 거품 이는 치즈를 얹은 디자인된 차(tea)까지 모든 것이 이 혼용에 포함되고 있다. OCT-LOFT의 개조된 창고 구역 거리를 걸으면, 어깨를 마사지해주는 가족 체스필드 안마의자와 헬스 용 기구를 갖춘, 흐린 조명의 헬스장이 나타나는가 하면, 예술가 수이젠궈(Sui Jianguo)의 조각, 3D 프린팅, 필름 회고전을 열고 있는, 소박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OCT 현대 아트 터미널(Contemporary Art Terminal)도 만날 수 있다. →

뛰어나고 세련된 셴젠 시는 세계 최신 트렌드의 본고장일 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만의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왼쪽 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빌딩들 사이에서, 소셜 스타트업 창업자인 탯 램





“센젠은 혁신이 유기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여러 도시 마을들의 총합”이라는 것이 탯의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군집 형태의 도시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거대한 메가 프로젝트로 가득 찬 곳이라기보다는, 작은 규모의 혁신들 중 어떤 혁신이 가장 성공적인지를 군중 자신이 결정하는 곳이지요. 인기 있는 혁신들이 성장할 거고요.”

지난 20년간, 이런 식의 작은 아이디어 중 일부는 정말로 거대해졌다. 2평방 마일밖에 안 되는 작은 구역 안에, 기술 대기업체인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그리고 세계 최선두 드론 기업인 DJI의 본사들이 있는 것. 이 모든 개발들은 덜 멋진 것들, 오염물질, 스모그, 소염 같은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곳 센젠은 몇몇 깔끔한 해결책을 제 DNA속에 삽입해두었다.

센젠 베이(Shenzhen Bay)의 해수 건너편에는 울룩불룩한 산들이, 아지랑이들 사이로 푸르게 솟아 있다. 그곳이 바로 홍콩이다. 이러한 근접성 덕분에 센젠에 유용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센젠은 홍콩에서 많은 걸 배웠죠.” 탯의 말이다. “홍콩은 산악 지역을 시골의 자연공원으로 만들었고, 센젠은 바로 그 모델을 모방했어요. 현재 센젠 시 공간의 절반이 전부 녹지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이죠.”

하지만 이러한 녹지대는, 도시 중심 구역의 심장부를 향해 구불구불 흘러 드는 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PHEV의 전기 드라이브트레인 덕분에 거의 무음에 가까운 상태로 도시를 향해해보니, 모든 도로에는 아자수, 열대 덩굴식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콘크리트와 유리는 그늘 짙은 관목들과 교차되어 있다. 심지어 고층빌딩의 옆면에도 식물들이 매달려 있다. 이러한 녹색 벨트를 따라가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아자수와 잔디 사이에 EV 충전 지점들이 있는 주차 공간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도시 어디에나 물 천지다. 낮게 흐르거나 숨구치거나 고요히 정지해 있는 물들.

“이 모든 지속 가능한 개발들은 무언가를 더 낮게 하느냐 아니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느냐 사이에서의 단순한 선택”이라고 탯은 말한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역사의, 기존 인프라의 부담을 안고 있지요. 센젠은 다르죠. 이 도시는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추동력은 상부에서

내려오지 않지요. 그 힘은 위협을 감내하는 용기 그리고 실행과 관련된 것이죠. 이런 시스템을 인구 10만의 소도시 같은 곳에서 실험한다면 혁신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인구 1천 3백만의 도시인 이곳에서는 혁신의 성과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죠. 바로 이 점이 새로운 일 처리 방식을 보편화시키고 있고요.”

센젠 모델을 지향하는 일의 가치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로빈 우(Robin Wu)가 바로 그다. 선도적인 이 기술 선구자는 이 도시의 정신을 온 몸으로 구현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녹색의 골프장 그리고 후하이의 유리 건물들이 내다보이는 그의 22층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역사의, 기존
인프라의 부담을
안고 있지요.
센젠 시는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추동력은 상부에서
내려오지 않지요.”

“센젠에 도착하는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이곳으로 오는 티켓은 편도 티켓이죠.” 로빈이 입을 열었다. “우리의 모든 걸 이곳에 바쳐야만 해요. 센젠의 성공 신화 대부분은 저처럼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로빈이 태어난 곳은 장시(Jiangxi) 성의 산중이다. 10년 전, 그는 듀얼 SIM 카드 같은 스마트폰 기능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 IT 전문가 그룹에서 일했었다. 지금 그는 자신이 개발한 최신 시제품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센젠 역사상의 질풍노도기는 끝났다고 믿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혁신을, 세계를 강타하는 경쟁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로빈의 생각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서구 시장에는 나오지

않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개발한 제품들, 스마트폰에 꽂아 노트북 컴퓨터로 (프로젝터나 스크린을 통해) 정보를 옮기는 장치인, 자그마한 신용카드 크기의 디바이스를 손에 쥐고 있다. 단정하고 심플한 장치다. 로빈의 회사인 미고패드(MeeGoPad)는 전통적 제조 기업인 화지안(Huajian)의 자회사로, 창의적인 위협을 감수하며 혁신에 도전하는 혁신 단위이다. 이 회사의 프로젝트 중 다수는 재원 확보 방법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고 있다.

“미고패드는 클럽에 가까워요.” 로빈의 설명이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지식을 공유하며 새로운 무언가를 →

테크놀로지 발명가인 로빈 우(오른쪽 위), 이노베이션 랩 창립자인 세스 리(왼쪽)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개척적인 생각의 중심지로 센젠 시가 부상하게 된 원동력이다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방향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죠. 수요가 있으면, 그걸 채우려고 할 뿐입니다.” 그가 우리 주변의 고층빌딩들 너머를 내다 보며 덧붙였다. “센젠 정신은 단지 돈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정신은 더 깊은 차원의 동기에 관한 것이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관한 동기 말이에요. 이 지역에는 300개의 상장 회사가 있지만 작은 회사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절반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 모두는 작은 회사들이었으니까요.”

타운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센젠 오픈 이노베이션 랩(Shenzhen Open Innovation Lab)은 바로 그 작은 회사들(이들이 바로 도시를 만들어낸 이들이다)을 산업 디자인 회사들과 연결시켜주는 공간이다.

“처음에는 팸랩(FabLab, 혁신형 제작실험실)으로 설립되었어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세스 리(Seth Li)의 설명이다. 팸랩이란, 미국에서 그 발상이 시작된 조직으로 프로젝트 관리, 웹사이트 설계, 하드웨어 설계 등 제조업체가 스스로 제품을 제작하도록 안내하는 모든 베이직을 제공한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작 기계들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곳이죠. 우리는 워크숍과 강연회도 개최해요. 제조업자는 여기 와서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고요.” 아이디어의 교환은 센젠 시 내 모든 сек터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인근의 충전 지점에 주차해둔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미리 냉방된 실내로 들어갔다. 이어서 전통적인 향만 지역인 셰크어(Shekou)로 향했는데, 디자인 소사이어티(Design Society)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글쎄요, 디자인 소사이어티라는 단어는 직역은 아니에요.” 이곳의 부국장 롱 자오(Rong Zhao)의 설명이다. “중국어로 우리 회사는 ‘서로 연결된 디자인’이라는 뜻이죠. 이 이름은 하나의 가교가 되겠다는 우리의 비전을 말해준답니다. 세계로, 지역 사회로 이어지는 가교, 도시 내

제조업체와 산업 디자인 회사들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말이에요.”

8년 전, 이곳의 한 메이저 기업인 차이나 머천트(China Merchants)가 프리츠커 상(Pritzker Prize) 수상 경력자인 일본 건축가 마키 후미히코(Fumihiko Maki)에게 셰크어 향만 지역의 문화적 중심이 될 건물의 설계를 요청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바로 그 공공 건물이 문을 열었다.

“셰크어는 특별한 곳입니다.” 롱의 말이다. “개방 과정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죠. 센젠의 시험관이었던 곳이죠.” 차이나 머천트의 첫 사업은 항구를 외부 세계와 연결시키는 것이었고, 이제 디자인 소사이어티와 함께 그들은 다시 한번 국제적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크리에이티브 인 차이나’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롱의 말이다. “센젠 시는 2008년 중국 내 최초로

유네스코 디자인 도시(UNESCO City of Design)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약을 진전시키고자 유럽 국립 박물관을 중국으로 데려오려는 첫 번째 계획을 세웠고요.” 이 노력은 런던 빅토리아 박물관·알버트 박물관과의 콜라보로 결실을 맺었다. 이 콜라보는 디자인 소사이어티 내의 영구적인 V&A(Victoria and Albert) 갤러리, 아이디어 공유 등을 포함한다.

“이 콜라보는 양쪽 모두에게 모험”이라고 롱은 말한다. “그간 우리는 이들을 센젠의 디자인 협회, 기술 기업체, 학교에 소개해 왔답니다. 반대로 그들은 커뮤니티에 초점을 둔, 신속 반응 수집(Rapid Response Collecting) 프로젝트 같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었죠. 이 프로젝트에서 대중들은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기부하게 되지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센젠에 있는 어느 학교 교복이 V&A갤러리의 영구 소장품이 되었고요.”

심지어 디자인 소사이어티가 들어가게 되는 건축물에도 센젠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기획이 담겼다.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죠.” 롱의 설명이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옥상 공원을 주변 공원들과 연결하는 계단도 있고요. 우리는 대지를 완전히 대중들에게 되돌려주었어요.”

문화적으로도 되돌려주기의 느낌은 있다. ‘공예: 더 리셋(Craft: The Reset)’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열린 전시회에서는 종이, 가구, 도자기 등 전통 중국 공예품들이 기념되었다. 그런데 이 기념은 21세기 센젠 안에서 진행된, 센젠을 위한 것이었다.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의 도시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공예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저우를 사업 무대로 둔 디자인 트리오 핀우(PINWU, 헤르메스를 위해 이들이 제작한 종이 의자도 전시회의 일부)의 한 사람인 조바나 보그다노비치(Jovana Bogdanovic)의 말이다. “여러 면에서 공예는 건축, 디자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요리에 두루 영향을 미치지요.”

예술성과 혁신의 이러한 융합이 현재 이 도시에 스며들고 있다.

인근의 아트론 아트 센터(Artron Arts Centre)에는 중국의 저명한 화악예술가 차이귀창(Cai Guo-Qiang)의 설치미술작품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벽면 도서관(높이 30m 길이 50m의 미술사 도서관)을 배경으로 디스플레이 되어 있다.

기술, 도시 문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니즈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센젠 시는 세계 내의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센젠이 가만 정지해 있을 가능성은 제로일 것이다. 진보가 이루어지고 미래가 만들어지는 건 언제나 움직이는 이들에 의해서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센젠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당신은 분명 페이스메이커(선도자)가 될 것이다. □

디자인 소사이어티의 롱 자오(위)는 더 넓은 세계로 문화적 다리를 놓는 것이 자기 조직의 미션이라고 본다.
오른쪽: 아트론 센터 내, 기록적인 벽면 도서관



G P

E E

T R

T S

I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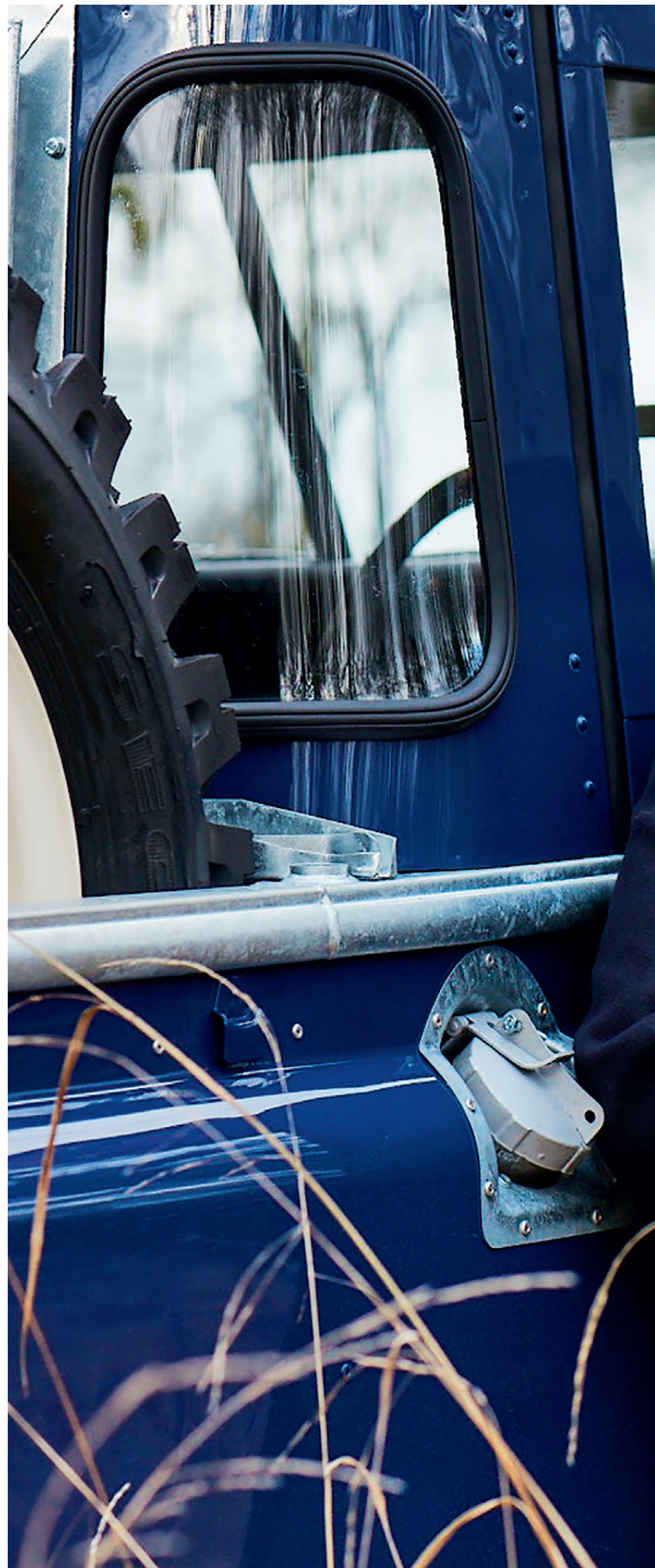
N N

G A

L

뱀포드 와치 디파트먼트는 명품 시계
맞춤제작이 전문인 기업이다.
<원라이프>는 이 기업의 창립자이자
랜드로버 마니아인 조지 뱀포드와 오프
로드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시계와
함께 해온 그의 인생 그리고 그만의
독특한 럭셔리 변형작업을 알아봤다

STORY LUKE PONSFORD
PHOTOGRAPHY ALEXANDER RHIND







“럭셔리를 결정하는 건 가격이 전부는 아니지요. 럭셔리는 맞춤형이어야만 하고, 고유화된 것이어야만 해요.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요.”



조지 뱌포드(George Bamford)가 랜드로버를 좋아한다는 표현은 약간 절제된 표현일 것이다. 조지 뱌포드는 랜드로버 마니아라고 해야 맞다. 코츠월드(Cotswolds)에 있는 그의 자택 이곳 저곳의 차고들에는 14대의 랜드로버가 보관되어 있는데, 디펜더 한 대, 과거 군용차였던 올프 모델 몇 대, ‘야수(The Beast)’라는 닉네임의 멋진 오프로더 한 대, 최근 복원된 견인 트럭인 1972 110 모델 한 대도 그의 자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런던 메이페어(Mayfair) 소재 뱌포드 워치 디파트먼트(Bamford Watch Department) 본사인 ‘더 하이브(The Hive)’의 호화로운 실내가 아니라 뱌포드만의 질찍한 비포장도로 위에서 그의 맞춤제작 시계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약간 뜻밖이긴 하다.

지금부터 16년 전, 뱌포드는 가족 회사인 JCB(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왕가들 가운데 한 왕가의 기업이자 밝은 노란색 굴착기로 유명한 기업)에 입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는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한다. 그 사업의 중심지인 더 하이브의 컨설팅 룸은, 고객들이 자기 취향대로 색상과 핸드 부분, 다이얼 옵션을 선택하고 시계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자기만의 시계를 제작할 수 있는 곳이다.

뱌포드는 시계의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박한데, 시계에 관한 그의 집착 어린 애정은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다. “저는 공학도 집안에서 자랐어요.” 우리를 태운 견인 트럭이 미끄러운 하강 구간을 스르르 미끄러지고 있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시계는 제 핏속에 있는 셈이죠. 어렸을 때 TV나 주서를 분해하곤 했는데, 그 일로 부모님 속을 꽤나 끓였어요.” 그의 입에 미소가 어렸다. “16살 때에는 부모님이 브라이틀링 네비타이머(Breitling Navitimer)를 하나 주셨는데, 제가 그걸 또 분해하고 말았죠. 부모님은 더 속상해하셨고요.”

그런데 그 네비타이머는 뱌포드가 시계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결정타가 된다. 그 후 그는 뉴욕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Parsons School of Design)에서 몇 년간 사진을 공부한다. 재학 중에는 벼룩 시장을 방문하며 값싸고 오래된 시계들을 사들이는가 하면, 무브먼트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어떻게 시침이 움직이는지를 학습했다.

시계 내부의 작동방식이 뱌포드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수많은 시계 디자인 앞에서 그는 냉담해졌다. “너무나도 많은 대중용 시장 명품들이 똑같은 스타일이라는 걸, 즉 똑같은 검정색 다이얼, 똑같은 강철 케이스라는 걸 알아챘죠.” 그의 말이다. “그래서 2003년, 저는 선물로 받았던 태그 호이어 모나코(Tag Heuer Monaco) 시계 하나를 고유한 스타일의 시계로 변형해보기로 했어요. 시계 전체를, 다이얼과 케이스, 전부를 검정색으로 코팅했죠. 제가 만든 첫 번째 맞춤제작 시계였어요.”

그가 이 검정색 모나코를 착용하고 다니기 시작하자,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것 같은 시계를 소유하고 싶어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뱌포드 와치 디파트먼트(BWD)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BWD가 생산한 초기의 시그니처 프로젝트들은 주문에 따라 상당히 변형된 롤렉스(Rolux) 제품들이었다. 특히 올-블랙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Cosmograph Daytona)가 주목 받을 만했다. 그러나 롤렉스 사측에선 자신들의 고전적 디자인에 대한 뱌포드의 해석을 못마땅해하는 눈치였다.

실제로 이 유명한 시계제품에 대한 뱌포드의 독특한 변형, 즉 블랙으로 코팅하고 다이얼과 핸드 부분에 서로 다른 색상을 입히는 식의 변형은 제품보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큰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고유화 사업은 성장세를 이어갔고, 뱌포드는 이윽고 더 하이브의 꼭대기 층에 자신만의 사내 서비스 부서까지 만들어낸다. 그리고 머지 않아서 BWD는 세계 최고의 롤렉스 시계 맞춤제작 업체로서 이름을 얻게 된다.

2016년,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국적 명품 그룹 LVMH가 BWD를 강력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거대 덕분에 우리는 매우 좋은 입지를 얻게 되었죠.” 그의 말이다. 우리를 태운 랜드로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사를 간신히 올라가고 있었다. “승인을 얻게 된 건 회사 역사상 최고의 성과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품에 제조사 제품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롤렉스를 포기한 BWD는 LVMH의 3대 프리미엄 시계 브랜드인 태그 호이어(Tag Heuer), 제니쓰(Zenith), 불가리(Bulgari) 제품에 주력했다. 뱌포드가 마련해놓은 광범위한 맞춤제작 옵션들은 이제 완전히 합법이었고, 이로써 고객들은 10억개 이상의 옵션 조합 가운데에서 선택하고 자기만의 취향대로 사양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BWD는 자사 브랜드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뱌포드 런던 메이페어(Bamford London Mayfair)와 GMT 오토(Auto)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브랜드 제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메이페어 제품은 49개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흥이 오른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또한 우리는 각 제품에 추가되는 맞춤제작 옵션을 소액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나 럭셔리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건 가격이 전부는 아니지요. 럭셔리란 맞춤형이어야만 하고, 고유화된 것이어야만 해요.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요. 제 자동차들에게도 그러하네, (시계에 대한) 제 관심은 그것이 개별적이냐 랍니다. 순수주의자들은 수용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개별성을 사랑해요.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랍니다.”

이러한 철학은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 세계 곳곳에 그의 제품을 판매하는 부티크와 딜러들이 활동하고 있고, 아시아와 미국에는 그의 제품들을 찾는 까다로운 고객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뱌포드는 자기가 속한 왕가 옆에 자기만의 작은 제국을 창조해낸 셈이다. 아울러,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만한 말끔한 제품 및 액세서리 라인도 준비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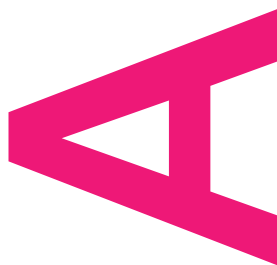
자, 그렇다면 뱌포드 브랜드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 맞춤제작 자동차일까? 아니면 주문제작형 개인용 비행기? 자갈이 뒤덮인 차도로 랜드로버를 밀고 가며 뱌포드가 서글서글한 웃음을 지었다.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여름 직전에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LVMH와는 전혀 상관 없는 새 파트너와 새로운 협력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10년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지금 같은 식의 사업은 감히 머리 속에서 떠올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전 끊임없이 생각하곤 하죠. ‘내일이 오면 이 사업이 망하는 건 아닐까?’” 그가 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하고 있는 브랜드들에 감싸인 채로 따스한 햇살을 쬔고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더 없이 좋다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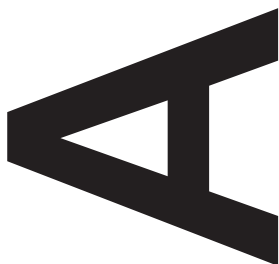
그리고 그가 말한 그 자리는 지금 머드 케이이 되어버린 랜드로버이기도 할 것이다. □

BWD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bamfordwatchdepartment.com

왼쪽: 조지 뱌포드. 자신의 시계 창작제품들과 함께. 그리고 코츠월드 소재 자택에서 사랑스럽게 복원된 랜드로버 견인 트럭 110 모델과 함께



<원라이프>는 해마다 컬러풀한 생명력으로 폭발하는 리우 데 자네이루의 뒷골목,
그 문화 현상의 현장을 (당신이 생각하는 유명한 그 카니발은 아니다.) 살펴본다.
호평 받고 있는 새 다큐멘터리 필름이 알려주듯, 그것은.....





프릴(웃 장식), 모피, 번쩍 번쩍 빛나는 조명 그리고 반짝이는 모든 것이

눈부신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의 마을 과달루페(Guadalupe)의 한 풍경이다. 화려한 장식의 의상과 가면을 한 일군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선다. 역사적 전통이 느껴지는 궁중 복식이지만, 완전히 모던한 네온 디자인과 다채로운 색깔의 트리밍을 갖추고 있어 밝고 호화롭고 야한가 하면 고상한 느낌도 잃지 않은 모습이다. 1년의 준비 끝에 거리에 나온 이들은 마치 뿜내며 걷는 공작새들 같다. 파라솔, 색깔 있는 연기, 불꽃놀이가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고, 흥분과 허세,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 대로 부풀 아이들이 거리의 주인이 되어 있다.

벤 홀맨(Ben Holman)과 네이린 존스(Neirín Jones)가 감독한 단편 영화 <이것이 베이트 볼라(This is Bate Bola)>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장면들이 포착되어 있다. 영화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리우 데 자네이루 카니발 서브컬처의 중심부로 관객을 깊이 끌고 들어간다.

이 다큐멘터리 필름은 주요 카니발 축제 광경이 아닌, 자신들만의 고유한 테마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수십 명의 노동자 집단을, 정교한 의상과 소품을 하나 가득 가지고 행사에 임하는 교외 마을 사람들 간의 초현실적 경쟁을 들여다본다. 놀이와 위협의 면모를 똑같이 지닌 베이트 볼라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카니발 전통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 전통에서 가면 쓴 이들은 동물의 방광을 땅바닥에 두드리며 군중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한다. 오늘날 방광은 막대에 묶인 플라스틱 방울이, 즉 배트(bat)와 볼(ball)이 대신하고 있다. 베이트 볼라는 ‘볼을 때려라(beat the ball)’는 뜻이다.

홀맨은 여권 내지에 부러울 정도로 많은 스탬프를 소유한 영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이다. “정말 가고 싶은 곳에서 휴일을 보내고, 돌아와 작업한 다음 알맞은 필름을 찾지만 하면 되지요.” 농담조로 그가 말했지만, 이것은 전 세계 곳곳의 강렬한 이야기들을 대담하게 조명하는 필름들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의 영화들만큼이나 홀맨은 따뜻하고, 매력적이며, 곧바로 호감이 가는 인물이다. 촬영 중의 골절로 한쪽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그의 활기 넘치고 단호한 태도를 금세 엿볼 수 있었다.

새천년 첫 해의 전야를 코파카바나 비치(Copacabana Beach)에서 보내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룬 뒤로 지금까지 홀맨은 런던과 브라질을 오가며 지내왔다. “10대 때 사귀었던 친구들을 통해 남미 문화에 강한 유대감을 느껴왔었죠. 그 덕분에 제 내면에선 남미 문화에 애착심이 생겼어요.”

홀맨은 <신의 도시(City of God)> 같은 영화가 만들어내는 선입견들로 인해 처음 가졌던 불안감을 떠올린다. “맞아요, 그곳엔 갱단과 총이 있긴 하죠.” 그의 말이다. “하지만 할머니들과 어린이들이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고, 자신들의 일상적 삶의 일부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제가 만일 그곳에 있다면 다른 규칙에 따라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열성적인 아마추어 복싱 선수이기도 한 홀맨은 리우에서 가장 악명 높은 빈민촌 중 한 곳에서 교육용 복싱 게임을 진행하던 NGO를 우연히 알게 된다. 도시의 스테레오타입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음을 발견한 홀맨은 그 마을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위한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영향력을 좀 더 넓히려는 희망과 함께. 마을 사람인 알란 두아치(Alan Duarte)는 NGO인 아브라스 캄피옹(Abraço Campeão)을 만든 사람인데, 홀맨은 알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게 된다. 그 결과물인 <더 굿 파이트(The Good Fight)>는 2017 트리베카(Tribeca)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고, 이는 곧 펀딩으로 이어져 그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제공 가능한 지원의 수준을 바꾸어놓았다.

홀맨의 영화들은 경험에 기반한 것이면서 동시에 내밀하다. 관객은 분위기를, 짜릿함을, 그 순간의 감각적 파워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그 영화들은 주변화된 목소리들을 위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 “제 많은 작품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테마가 있어요. 잘못 이해되고 있거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은 장소나 사람을 직접 찾아가 살펴보는 것 (그런 장소나 사람에 대한 우리의 얇은 대체로 언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에 의해 만들어지죠)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이트 볼라에 관한 제 아이디어는 그 마을들에서 제가 만났던, 매우 강렬하고 정말로 실재하는 그 따뜻함,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보여주자는 것이었죠.”

“베이트 볼라는 정말 에너지 넘쳐요. 소음, 냄새, 광기가 가득한 행사이지요. 재미나고 아름답죠. 하지만 약간은 긴장되고 무섭기도 해요. 베이트 볼라야말로 빈민촌에 사는 이들에 대한 놀라운 은유라는 생각이 들었죠.”

홀맨이 보기에 베이트 볼라는 자국 내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외국의 평가가 필요할지 모르는 무언가의 사레다.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들은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셈이죠. 자신들의 작은 마을 바깥에 이들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의상들, 모든 것에 들어가 있는 자신들의 예술에 대해서도 존경도 찬사도 받지 못하고요.”

베이트 볼라 극장의 메아리는 시카고와 런던의 특별 상영관 현장에서도 울렸다. 서서 보는 관객, 브라질 음악인들이 참가하는 반은 즉흥적인 라이브 공연, 사운드트랙 제작자 벤 라마르 게이(Ben Lamar Gay)의 밴드, 카니발 분위기를 재현하는 괴물 스피커들이 함께 한 애프터파티가 등장한 것이다. 홀맨은 영화 <이것이 베이트 볼라>가 그 행사에 대한, 그리고 카니발 외 리우의 다른 면모에 대한, 뒤늦었지만 필요한 관심과 인정을 불러일으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리우는 제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추한 도시입니다.” 벤이 말을 이었다. “그 도시는 암흑에 잠길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매주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그곳엔 언제나 진정한 마법의 순간이, 뭔가 특별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



벤 홀맨은 런던의 한 광고 에이전시 회사를 다녔다. 지금은 세계의 숨은 이야기들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만들고 있다



WATCH THE FIRM <이것이 베이트 볼라>를 감상하려면, 아울러 더 많은 벤 홀맨의 작품을 만나보려면 방문하십시오. www.beijafilms.com



“재미나고 아름답죠.
하지만 약간은 긴장되고
무섭기도 해요. 베이트
볼라야말로 빈민촌에 사는
그들에 대한 은유죠”



2년 전 시작된 랜드로버 클래식 워스의 리본(복원) 프로그램은 디테일의 중시, 뿌리 깊은 애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랜드로버 역사상 출현했던 이정표적 차량을 찾아내고 지상에 올린 뒤, 완전하며 원형 그대로인 공장 사양으로 차량을 복원하는 것이다. 잔존 부품 상태를 향상시키는 작업과 새 부품을 정밀하게 엔지니어링하는 작업을 결합시켜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다.

랜드로버 차량은 본래 ‘어디든지 가는’ 차량이었다. 따라서 리본 프로그램에 기증될 차량들은 가장 높은 봉우리부터 가장 낮은 계곡까지, 도심부터 무인 전초기지까지, 극한의 열대 지방부터 한대 지방까지, 말 그대로 지구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 이걸 하나의 문제인 걸까? 아니면 랜드로버 마니아로서는 평생에 한 번 찾아올 만한 꿈 같은 기회일까?

“물론 후자이지요.” 클래식 워스 캘럼 맥케그니(Calum McKechnie)의 말이다. “우리 직원들은 랜드로버 마니아들이예요. 너트와 볼트, 패널 하나 하나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분들이죠. 루마니아의 한 우사에서 디펜더 차량을 빼내야 하든, 히말라야 산 중턱에 복원이 필요한

레인지로버가 있는 도움을 주겠다는 자원봉사자들이 언제나 줄을 서고 있고요.”

리본 프로그램에 기증되는 차량 대다수는 스토리가 있는 차량들이다. 시리즈 랜드로버 모델의 경우, 약간 페인트 변경을 한 것부터 집에서 손수 맞춤변형을 한 것까지 스토리는 다양하다. 차량 새시를 아예 다른 용도의 차량으로, 심지어는 소방차, 이동식 도서관 차량, 음식공급용 밴으로 완전히 개조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발견된 어느 차량 한대는 클래식 워스 팀의 최고 베테랑들까지도 매혹시킨 스토리를 숨기고 있었다. 특히 레게와 루트 음악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매혹되었다.

“모든 것은 1980년 모델인 투 도어 레인지로버 한 대가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시작되었어요. 그건 매우 특이한 역사가 있는 차량이었죠.” 맥케그니의 말이다.

“솔리힐 공장에서 제작된 후 독일로 수출된 차량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이번엔 자메이카였어요. 그곳에서 차량의 색상은 마사이 레드에서 블랙, 블루, 그린 혼합으로 바뀌었죠. 그 뒤 자메이카와 영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오갔고요.”

“이 차량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깊어져서 차량 소유권의 역사를 파고들 정도였죠. 원본 등록 서류에 로버트 네스타 말리(Robert Nesta Marley)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 말리(Bob Marley)의 레인지로버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아마도 연에 관계 같은 건 전혀 아니겠지만, 말리와 랜드로버 간의 관계는 꽤나 깊은 것이었다. 말리의 다른 랜드로버인 1976년 모델 →

REDEMPTION SONG

클래식 워스의 리본 팀이 흥미를 자아내는 고색 창연한 레인지로버 한 대를 발견했다. 그것은 별빛 같은 음악의 역사를 내부에 숨겨놓고 있는 차량이었다.....

STORY DAN DRAGE





세계 최고의 아이콘 뮤지션 중
한 명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던
하지만, 밥 말리는 열성적인
자동차 마니아이기도 했다

시리즈 III 트럭은 2015년에 복구 및 복원되었다. (박스 기사 참고)

왜 성년의 밥 말리는 랜드로버를 두 대씩이나 탐내야 했던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가 자메이카 북쪽 해안 시골마을인 세인트 앤 패리쉬(Saint Ann Parish)에서 성장했다는 데 있다. 전례 없는 레게 천재들의 온상으로(버닝 스피어 Burning Spear, 샤바 랭크스 Shabba Ranks, 마커스 모시아 가비 Marcus Mosiah Garvey의 고향이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세인트 앤은 자메이카 지역 중에서 가장 외진 농촌 마을이기도 하다. 고향 마을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음미하기 위해서 말리는 어디든 편히 볼 수 있게 해주는 구식 오프 로더가 필요했을 것이고, 분명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 차를 타고 고향 마을을 돌아다니기를 즐겨 했다.

말리의 시리즈 III은 대부분 손대지 않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반면, 그는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는) 레인지로버의 색상을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말리의 레인지로버 내부를 검토한 상태인데, 그가 손수 진행한 페인트 작업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어요.” 맥케그니의 말이다. “보닛엔 블랙, 도어 패널 대부분에는 그린, 지붕에는 다크 블루를 칠했던거요. 이런 건 정말이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클래식 워크스가 수행한 추가 연구로 페인트 칠 작업으로 바뀐 이는 말리가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그는 그 작업을 자기 아이들에게 맡겼던

것이다. 즉, 이 페인트 작업은 붓을 들었을 당시 아직 중학생 또래였던 스테판(Stephen), 로한(Rohan), 줄리안(Julian) 말리 덕에 가능했다. 아버지가 자기들이 손수 꾸민 차로 학교와 축구 클럽, 다른 여러 클럽들로 데려다 주었던 그 시절을, 이들 모두가 애뜻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말 리 는 그 페 인 티 작 업 을 자 기 아 이 들 에 게 맡 겼 다”

실제로 이 레인지로버와 시리즈 III 모델은 현재 자메이카 포틀랜드 지역에서 커피 농부이자 플랜테이션 소유주로 살고 있는 (미국 축구선수였던 이전 경력과는 상당히 다르긴 하다.) 로한에게 평생 지속될 영향을 남겼다. “제 랜드로버를 타고 커피 농장 사이를 운전하기를 즐긴답니다.” 아버지를 위한 70주년 기념 콘서트 행사장에서 (복원된 시리즈 III 모델이 행사장에 등장하기도 했다.) 로한이 BBC에 한 말이다. “1970년대식 랜드로버 차량들을 여전히 운전하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로한이 덧붙였다. “그들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계속 달릴 겁니다.”

새로 발견된 이 레인지로버의 인생 스토리, 그 다음 장은 여전히 집필되고 있다. “우선, 색상을 결정해야 하죠. 말리 가족의 벽화를 보존할지 아니면 공장에서 생산된 원형 그대로 복원하며 마사이 레드로 바꿀지를요.” 맥케그니가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다수의 옵션이 있어요. 차량을 경매에 부치거나, 밥 말리 뮤지엄에 기증하거나 우리의 소장 목록에 추가하는 옵션도 포함해서요. 저는 밥 말리의 광 팬이랍니다. 벌써 어떤 애착 같은 것이 제 안에서 커지기 시작했네요.” □



사 건 파 일: 또 다른 말 리 랜 드 로 버

클래식 워크스에서 복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 레인지로버(맨 위)는 지하에서 부활한 첫 번째 말리 랜드로버는 아니다. 블루 색상의 1976년 모델 시리즈 III (위)이 2015년에 복원되었고, 이 차량은 말리의 70번째 생일(살아 있었다면 맞이했을 생일)을 기념하는 무료 콘서트에 등장하기도 했다. 자메이카의 랜드로버 대리점 운영업체 샌달스 리조트 인터내셔널(Sandals Resorts International)은 ATL 오토메티브(Automotive)의 마스터이자 랜드로버 기술자인 스티븐 제임스(Stephen James), 미국 부품 공급업체 로버스 노쓰(Rovers North), 그리고 말리의 유족과 손을 잡고 이 차량을 다시 제작했다. 클래식 워크스에서 제공하는, 밀리미터 단위까지의 완벽하고 철저한 복원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은 자메이카 시골에서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구가할 준비가 된 모습이다.

FIND OUT MORE 랜드로버의 글로벌 소셜 미디어 채널을 팔로우하면 올해 후반기에 말리의 레인지로버에 관한 업데이트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역사적인 차량을 복원하는 작업에 관한 문의라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jaguarlandroverclassic.com



BORN WINNERS

랜드로버 본 어워즈가 비할 데 없는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을 축하한다.
최근에 수상한 수상자들은 스타일과 재료의 완벽한 블렌딩을 과시한다



위대한 디자인은 시간의 테스트를 이겨내는 디자인이고, 그러한 디자인을 창조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시리즈 랜드로버 모델들(그리고 이들의 직계 후속 모델인 디펜더)부터 최근의 레인지로버 이보크까지, 랜드로버는 목적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상상력마저 사로잡는 디자인을 창조하는 일에 익숙한 브랜드이다.

자동차 세계 밖에서도 어떤 브랜드들은 비할 데 없는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제품을 창조하는 일에 관해서라면, 대부분의 브랜드보다 더 특출나다. 지포(Zippo) 라이터, 앵글포이즈(Anglepoise) 테이블 램프, 스위스 아미(Swiss Army) 칼, 팬톤(Panton) 의자, 이 브랜드들은 똑똑한 기능만큼이나 심미적 아름다움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비할 데 없는 디자인의 성과들을 찾아내고 기리는 것. 2018 본(BORN) 글로벌 어워즈의 중심 가치는 바로 이것이다.

랜드로버 사가 2년 연속 공동 후원하는 본 어워즈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의 글로벌 창의성, 디자인, 독창적 지능을 기리고 격려하는 연례 행사다. 본(BORN)은 창의적 전문가들간의 디지털 프리미엄 네트워크이자 디자인 중심 제품들의 B2B 시장으로서, 장 크리스토프 쇼팽(Jean-Christophe Chopin)에 의해 설립되었다. 본 어워즈는 영감을 제공하며 도전적인 제품들과 그 제작자들을 기린다. 경쟁은 치열해서, 올해에는 세계 6개 지역 출신의 약 7,000여 참가자들이 지원했지만 48개 팀으로 좁혀졌다. 그 결과 런던 소재 디자인 뮤지엄(Design Museum)에서의 시상식을 통해 최고

왼쪽: 브롬튼 접이식 자전거가 전기 버전으로 스마트하게 변신했다.
맨 위: 랜드로버 디자인 책임자인 게리 맥거번이 수상자들을 기리고 있다.
위: 수상자인 브롬튼의 월 칼리시미스와 데이비드 리스



중 최고를 선별하고 기리는 무대가 마련되었다.

모빌리티 디자인(Mobility Design) 부문에서는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또 다른 영국 브랜드가 트로피를 가져갔다. 브롬튼(Brompton)의 접이식 전기 자전거가 바로 그 승자다. 이미 디자인 고전인 이 접이식 자전거는 1981년 처음 생산된 이래 지금껏 원래의 디자인이 고스란히 유지되어 왔다. 런던 시내 통근자들이 이 소형 자전거를 지하철로 쉽게 옮기려고 껌싸게 접는 모습이나 출구로 나갈 때는 다시 펼쳐서 도로 위로 부드럽게 올라가 뺄고 사라지는 모습은 너무나도 흔해서, 브롬튼은 도시인의 자유와 교통간 연결성의 편리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어 왔다.

작년에 출시된 이 전기 자전거 기종은 눈에 띄게 단정한 고품질의 접이식 솔루션을 선보이며, 한참 뜨고 있는 e-bike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가벼우며 쉽게 탈부착 가능한 배터리 팩이 프론트 휠 허브 안쪽의 기가 막히게 컴팩트한 250와트 모터에 결합되어 있어, 사이클링 퍼포먼스를 지능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사이클러의 노력을 감소시킨다.

이 행사 심사 위원이었던 랜드로버 사 디자인 총괄 책임자 게리 맥거번(Gerry McGovern)의 말처럼, 수상할 자격이 있는 수상자이다. 맥거번은 이렇게 말했다. “비할 데 없는(peerless)’라는 단어를 들을 자격을 진정 갖추려면 상상력, 지성, 재치, 약간의 지혜 이상의 지혜가 요구된다.”

나머지 수상자들(최고의 디자인 영웅들과 미래의 고전들의 명단)의 개요를 보려면 계속 읽어가시길. →



BORN AWARDS 2018: THE BEST OF THE REST

01 실내 디자인

마이클 아나스타시아데스(Michael Anastassiades)의 플로스 어레인지먼트(Flos Arrangements)는 거의 보석 같은 느낌이 드는 매력적인 제품들을 제작한다. 이 영국 조명 회사의 펜던트 램프들은 서로에게 우아하게 안착되는 기하학적 조명 요소들로 구성된 모듈 시스템으로, 빛의 다중 조합들은 발광하는 떠돌이의 묘한 구성을 만들어낸다.

차점자: 일리아 포테민(Ilia Potemine), 이스프 램프(Isp Lamp) (프랑스)

02 건축 디자인

시노 주치(Cino Zucchi)가 설계한, 토리노 소재 이탈리아 커피 제품 회사 라바자(Lavazza)의 새 본사 건물 디자인이 이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 눈부신 누볼라(Nuvola) 콤플렉스는 이전의 산업 현장을 예술성 가득한 자연들의 조합(새로운 현장 한복판에는 분수, 나무, 녹지 공간, 벤치, 보행용 연결로가 있다) 그리고 최고의 LEED Gold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재생시켰다.

차점자: 라몬 에스테브(Ramon Esteve), 봄바스 겐스(Bombas Gens) (스페인)

03 스포츠 디자인

프랑스의 유명 스키웨어 브랜드인 푸스알프(Fusalp)의 알렉상드르 포베(Alexandre Fauvet)에게 이 부문 영예가 돌아갔다. 푸스알프의 '스포츠 시크' 철학은 성능과 우아함의 결합을 통해, 동계 올림픽의 경사지에서도 스키 후 휴식을 취하는 집 안에서도 똑같이 편안해 보이는 스키복, 재킷, 신발을 제작해낸다.

차점자: 테켈(Teckell), 90° 미누토(Minuto) (이탈리아)

04 레저 디자인

NBA로부터의 금지 조치와 있고서야 사람들은 미국인 형제 라이언 골드스톤(Ryan Goldston)과 아담 골드스톤(Adam Goldston)이 무엇을 창조했는지 알아챘다. 이들의 애틀레틱 프로펄션 랩스(Athletic Propulsion Labs) 스니커즈는 발 전면쪽의 압박 스프링을 이용해 착용자에게 활력을 제공한다. 도움을 주며 편안함을 제공하는 테크룸(TechLoom) 결합 구조를 갖춘 APL의 독특한 제품들은 스포츠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차점자: 클라라 다강(Clara Daguin), 아우라 인사이드(Aura Inside) (프랑스)

05 테크놀로지 디자인

패션 산업의 낭비적 면모에 절망한 스페인 사업가 하이베르 고이네체(Javier Goyeneche)는 에코알프(Ecoalf)를 출범시켰다. 바다에서 건져낸 플라스틱을 포함한 리사이클된 재료들로 제작된 에코알프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들은 현재 귀네스 펠트로(Gwyneth Paltrow), 윌 아이엄(Will.i.am.) 같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다.

차점자: 휴고 메르시에(Hugo Mercier), 드림(Dreem) (프랑스), 맥스 폰트렐리(Max Pontrelli), 랩 스틸 기타(Lap Steel Guitar) (이탈리아)

특별상

로ewe 재단(Loewe Foundation), 조각가 니노 무스티카(Nino Mustica), 그리고 스코트 페인터(Scott Painter)의 미국 기반 페어(Fair) 앱이 수상자들이다. 페어 앱은 장기간의 약정이나 빛의 부담 없이 휴대기기를 통해 이전에 소유했던 자동차들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예측분석기술을 활용하는 최첨단, 올 디지털, 엔드 투 엔드 거래 플랫폼인 페어는 깨끗하고 효율성 높은 디자인은 사실상 극도로 복잡한 것임을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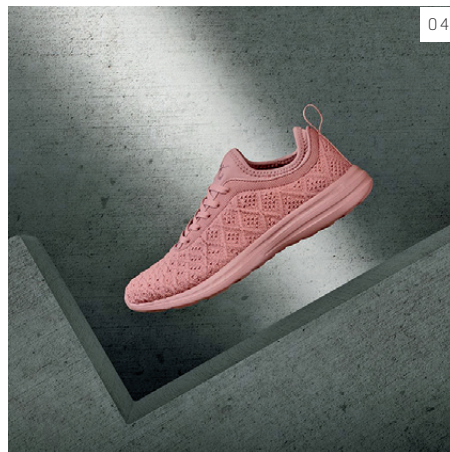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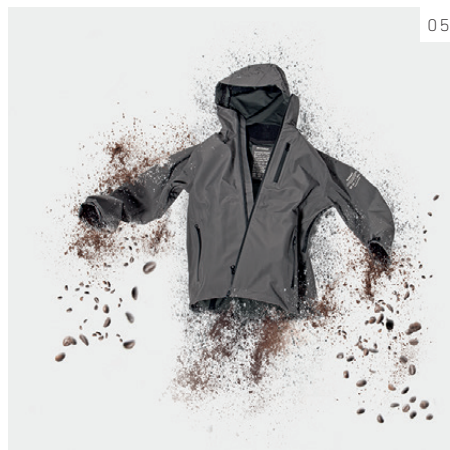
03



04



05





V I C T O R Y

I S

M A D E

O F

T H I S



방글라데시 산악인이자 인권 활동가인 와스피아 나즈린, 통상적 규범을 기꺼이 거부하다

와스피아 나즈린(Wasfia Nazreen)은 자신이 세계의 정상에 올라

일출을 감상하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이르는 그녀의 여정은 혹한과 질병, 매일 마주쳐야 하는 치명적 눈사태의 위험과 맞서 싸우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여로에서 그녀가 만난, 이미 사망한 산악인들의 언 시체가 그 여정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여정인지를 냉혹히 상기시켜주었다. 해발 8,000미터가 넘는 곳, 정상에 가까워지자 눈물방울이 처음으로 흘러내렸다.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을 때는, 감사하다는 마음에 힘써 견잡을 수 없이 흐느꼈다. “등반하는 동안 너무나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돌연 찾아왔어요. 제가 살아왔던 시간 전부가 섬광처럼 제 눈앞을 스쳐갔죠. 히말라야의 신들과 여신들 사이에서 제 자신이 별레보다도 작게 느껴졌어요.”

2012년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었는데, 당시의 경험이 이 36세의 방글라데시 출신 활동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말았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제한적인 것인지 새로운 깨달음을, 인권 활동을 위한 신선한 힘과 시각을” 선사해준 경험이었다. 나즈린은 단지 그녀 자신을 위해 등산을 하는 것이 아니다. 등산은 방글라데시와 전 세계의 여성들의 희망과 용기에 힘을 보태는 그녀만의 방식이다.

에베레스트 산 등반은 ‘일곱 개의 정상에 선 방글라데시’라는 프로젝트의 일부일 뿐이다. 이 프로젝트는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시 고통 당한 불굴의 여성들에 대해 그녀가 바치는 헌사의 성격을 지닌다. 2015년, 그녀는 뉴 기니(New Guinea)에 있는 카르스텐즈 피라미드(Carstensz Pyramid)의 정상에 올랐는데, 이로써 방글라데시 인으로는 최초로 세계 7대륙의 정상에 모두 오른 수백 명의 반열에 올랐다.

각 정상들에서, 나즈린은 자랑스럽게 방글라데시 국기를 펼쳐 보였고, 이어서 접이식 홀라후프 하나를 꺼내서 허리에 두르고 빙글빙글 돌렸다. “어렸을 때 홀라후프 놀이한다고 꾸지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해, 집에서 노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금지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저만의 방식인 셈이죠.”

나즈린은 방글라데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치타공(Chittagong)에서 자랐다. 수도인 다카(Dhaka)에서 학교 교육을 끝마친 뒤에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아 예술과 심리학을 공부했다. 여성들이 어떻게 치유 방편으로서 예술을 사용하는지에 관해 논문을 썼고, 이를 계기로 인도 내 무수한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다. 티벳 망명 정부가 있는 다람살라(Dharamshala)도 그런 곳 중 하나로, 바로 이곳에서 산과 인권에 대한 열정이 움트고 자라났다. 자신 단체들에서 일했지만, 어느 순간 등산에 대한 열정과 전업 인권 활동을 결합해보기로 결심했다. 지금은 인권 학대와 기후 변화에 관한 의식을 각성시키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비록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긴 했지만, 방글라데시 여성으로서 일곱 개의 정상 등반을 완수하는 데는 심각한 어려움이 따랐다. 그건 물리적인 어려움만은 아니었다. 정신적이고, 재정적이며, 실행 계획에 관한 어려움이었다. “차별과 모욕이 있었고 심지어는 살해 위협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커져가는 여성의 힘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뿐이죠.”

자칭 완벽주의자인 나즈린은 탐험을 위한 준비가 일종의 예술작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행 계획은 수개월 전, 심지어 수년 전에 시작되며, 체력 훈련은 1년 내내 진행된다. “아무리 잘 준비 해도” 그녀의 말이다. “하나라도 잘못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잘못되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답니다.” 나즈린은 매일 아침을 명상으로 시작하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제게 마인드풀니스는 필수예요. 한편, 등반과 등산은 성찰과 안정의 원천이고요.”

그녀 자신도 인정하는 바지만, 그녀의 직업은 통상적인 직업은 아니다. 특히 그녀가 선택해온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거나 ‘금지’로 여겨지는 어떤 사회의 시각에서는. “하지만 그거야말로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 말이에요.” □

나즈린의 산악 정복은 방글라데시 여성들에 대한 헌사의 의미를 지닌다. 왼쪽 위: 에베레스트 산 정상 쪽에서 찍은 티벳 사진. 달라이 라마가 보인다. 오른쪽 위: 알래스카, 디날리 산 정상에서.



S T O R I E S U N D E R F O O T

당신이 궁극의 탐험을 꿈꾸고 있다면, 그건 어떤 종류의 탐험일까? 시간 여행이라면, 어떨까?
고생물학자 케네쓰 라코바라가 지구의 중심으로의 여행에 우리를 초대한다

존재할 것 같지 않은, 불가사의한 장소를 방문하고 싶은가? 신비에 싸여 있는 곳,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짝 엿보는 게 충분히 가능한, 흥미를 돋우는 곳. 너무나도 웅대하고 초현실적인 사건들이어서 그것에 관해 알게 되면 열혈 판타지 소설 독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설마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떨까? 마음의 눈으로, 발밑을 살펴보자. 카펫, 바닥, 그리고 아래쪽의 지구로부터 여러분을 분리시키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을 투시해보라. 이제 여러분이 있게 될 장소의 광휘는, 그 자체의 광대한 역사 속에서, 오늘날 가장 예찬되고 있는 경이로운 자연들과 동급일 가능성이 크다.

이보다 더 멋진 지구상의 경관은 없다고 찬미되는 경관. 바로 미국 그랜드 캐년 그트머리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이다. 그 그트머리에서 13km 정도 아래로 뻗어 있는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Bright Angel Trail)을 따라 내려가 보는 경험은 영혼을 뒤흔드는 경험이다. 약 20억년의 세월을 거슬러가는 여행이자, 우리의 지구 그 자체였던 수많은 과거 세계들을 따라 가보는, 우리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리는 항해이기도 하다. 또한 허다한 여행자들에게 거대한 시간의 원호(arc)와 대지에 접촉한 듯한 압도적인 느낌을 남기는, 전환적인 경험이다.

이곳의 뒤틀린 최하층 지반은 가열되고 압착된 변성암들이 채우고 있다. 이 바위를 위에는 기이한 퇴적암 구조를 하나가 서 있는데, 지난 5억 년 간 육지에서 바다로, 또 그 반대 방향으로 일종의 요요(yo-yo) 운동을 해온, 해수의 숭한 침입과 퇴각의 역사가 담겨 있는 기록물이다. 이 사암층 안쪽의 석회석과 이판암(泥板岩, shale)은, 아래쪽에 있는 원시적이고 괴이한 형태의 고대 생명체들부터 위쪽에 자리 잡은, 우리에게 한결 더 친숙한 생명체들까지, 생명의 연속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화석들이다. 하지만 지질학적으로 이 화석은 꽤나 평범한 것들이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도록 암석의 단면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콜로라도 강의 침식력이 이곳의 고원지대를 산산이 갈라놓았고, 이로써 아래쪽에 놓여 있던 지구의 역사를 드러낸 것이다. 지질학에서는 노출이 전부다. 지각과 맨틀이라고 불리는 지구의 최상층들, 즉 지구의 암석권은 지구 역사의 저장소이다. 이 저장소의 책들에는 서사시들이 담겨 있지만, 도서관은 대부분 폐쇄되어 있다. 우리 같은 표면 거주자들에게는, 침식과 용기가 이 페이지나 저 챕터를 드러내려고 도모하지 않는 이상, 닫혀 있는 세계인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무수히 존재하는 이야기들 중 가장 위쪽에 있는 페이지들만을 가로지르며 평생을 살아온 셈이다. 조금만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깊은 시간의 이야기들을 잠깐 잠깐 엿볼 수 있다.

맨해튼을 출발해 허드슨 강 건너편을 바라보면, 강 가장자리에서 솟구친 어두운 암벽들이 암석 요새의 꼴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00피트 높이의 이 팰리세이드(Palisades) 절벽은 지구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한 순간을 알려주는 곳으로, 2억 년 전 지질의 구조적 힘이 당시의 초대륙, 즉 판게아(Pangaea)를 깨트렸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다. 지구의 지각은, 훗날 대서양이 될 선을 따라 알아졌고, 그러자 아래쪽의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 거대한 주머니 모양의 용해된 암석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지각상의 대격동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권에 방출되었고, 이 현상은 급기야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돌연한 변화는 대다수 유기체들의 죽음을 불러왔다. 최악의 사태가 막을 내린 시기인 트라이아스기(Triassic Period) 말기에 이르면, 전체 생물종의 75% 이상이 멸종된다.

그 즈음 지상을 호령했던 거대 육상 동물은 악어의 조상들이었다. 공룡들은 아직 지배권이 미미해서 자기들보다 더 크고 더 사나운 이 녀석들과 경쟁하느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 대멸종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악어들의 처지가 가장 나빴다. 경쟁 무대가 재조정되면서 공룡들은 번성을 했고 이들은 현기증 날 정도로 다채로운 종들로 진화를 거듭해서, 쥐라기(Jurassic Period), 백악기(Cretaceous Period) 내내 지상 생태계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가는 여행자들은 누구나 이 같은 생물학적 진화를 촉발시킨 믿기지 않는 대멸종의 현장을 올려다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특이 사례가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집들의 입구 쪽에서 아래를 보면, 북미의 서쪽 해변 끝을 따라 표면을 덮은 암석 퇴적물들이 눈에 띄는 것이다. 이 퇴적물들은 결국에는 이 도시의 기반암을 알래스카 심장부로 퇴적시키게 될 지각 컨베이어 벨트 위의 승객들이다. 필라델피아에서 피츠버그까지, 펜실베이니아 터파이크(Pennsylvania Turnpike)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차량은 애플래치아 산맥을 횡단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산맥은 한때

모로코의 아틀라스 산맥과 스코틀랜드 고원지대의 일부를 포함했던, 거대한 한 산맥의 일부다. 플로리다 소재 어떤 수영장 아래에 있는 석회석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상어인 길이40피트의 메갈로돈(megalodon)이 공포 통치를 했던 따뜻한 바다 속의 물건이다. 여러분이 콜로라도의 프론트 레인지(Front Range) 산을 올라간다면, 멕시코 만에서 북극해로 뻗어 있던, 내륙 해로상의 해안을 횡단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해안선을 따라 스테고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 같은 가장 잘 알려진 몇몇 공룡들이 돌아다녔다.

자, 그렇다면 잠시간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을 묵상해보시길 바란다. 단언컨대, 그곳은 경이로운 장소일 것이다. 돌로 된, 45억년 지구 역사의 독특한 한 조각 말이다.

지구의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알아보려면, 온라인으로 지질학 역사를 검색해도 되고, 가까운 곳의 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해도 되며, 도구를 쥐고 직접 땅을 파 봐도 좋을 것이다. 발밑에 있는 바위투성이의 스토리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보시길.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는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다. □



MEET THE AUTHOR
케네쓰 라코바라
(KENNETH LACOVARA)
뉴저지, 로완 대학의 에델만 포ossil 파크
(Edelman Fossil Park)의 설립
이사이자 <<왜 공룡이 중요한가(Why
Dinosaurs Matter, Simon &
Schuster, 2017)>>의 저자. 그의
TED 강연 “우주 내 인간의 지위를
내게 알려진 공룡 사냥(Hunting for
dinosaurs showed me our place
in the universe)”이 TED.com에
올라와 있다.

ARE WE THERE YET?

크고 작은 재미난 여정에 디스커버리는 믿음직한 동료라는 것이 모험가 벤 손더스의 생각이다

성인이 된 이후로 극 지방의 언저리에서 썰매를 끌며 오래도록 세월을 보내는 기간 내내, 나도 모르게 어떤 신화를 지속시켰던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든다. 북극권을 가로지르거나 불모지 남극 고원 땅을 조금이라도 밟지 않는 여행은, 진정한 모험으로서 자격 상실이라는 신화 말이다. 하지만 진실은, 내가 빙판 위에서 보낸 모든 시간 전에는 그보다 한참 많은, 훨씬 덜 매력적인 준비 및 훈련 시간이 선행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극지 탐험가의 경우, 썰매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 대비 소프트웨어를 다루며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아마도 1:1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이 직업의 한 가지 특혜는 통근거리였다. 2013년 남극대륙을 향해 떠날 채비를 했을 당시 (단 둘이서 3000km에 가까운 남극 원정을 시작해 도보로 하는 최장 거리의 극지 여행 기록을 수립했던 때의 일.) 나는 런던에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내 개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배터시 파크 (Battersea Park)는 공포스러운 비어드모어 빙하(Beardmore Glacier) 등반 용 훈련에 최적의 장소는 아니었고, 따라서 준비를 마치는 데는 한 두 차례 이상의 로드 트립이 필요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은 올해 30주년을 맞이한다. 즉, 지구와 인간의 한계를 향한 탐험의, 탐사의 30년 여정이 완성되는 해다. 이 차량을 소유했던 10년간 난 웨일스, 더 레이키 디스트릭트, 스코틀랜드, 알프스, 심지어 아이슬란드의 언덕, 습지, 고지대 초원, 고원, 계곡들에서

진행되었던 훈련 여행을 하며 6자리수 마일의 거리를 이동하는 기록을 세웠다. 여정 중간 중간에 '디스코(디스커버리)'는 잘 차려 입은 나를 후원자들과의 미팅에, 또한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자선단체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연설 현장에 데려다 주었다.

내 탐험 역사의 묘한 역설 중 하나는, 가장 큰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이하게도 절정의 짜릿함과 반대되는 감정에 휩싸였다는 것이다. 나는 남과 북의 극지에 홀로 스키를 타고 도착했고, 새클턴(Shackleton)의 기록을 갱 남극 여정도 홀로 완주했다.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불꽃놀이 같은 건 없었다. 피로, 안도감, 현실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막연한 염증이 묘하게 뒤범벅된 감정이 있었을 뿐. 여행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일 뿐이라는 속담에는 분명 진리가 담겨 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건 바로 이러한 긴 여행들이다. 한 대의 랜드로버, 진흙이 붙은 보행자용 부츠와 배낭을 착용한 친구들, 부츠를 신은 젖은 개 한 마리, 차 한 병, 언덕 한 두 개를 걸어 오르려는 계획과 함께 했던 모험들 말이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간 분명 지상에서 가장 높은 지역을 다시 탐험하게 될 테지만, 나는 친구들과 함께 높은 지대로의 로드 트립도 더 많이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데는 시간을 덜 쓰겠다고... □



CASTROL EDGE PROFESSIONAL

THE MOST DEMANDING ENVIRONMENT ON EARTH



ABOVE & BEYOND



UNDER THE BONNET OF YOUR LAND ROVER

최고의 효율성, 그 어느 때보다 적은 배출량 그리고 랜드로버의 전설적인 퍼포먼스까지. 이제껏 랜드로버 엔진에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랜드로버와 공동 설계한 캐스트롤 엣지 프로페셔널(Castrol EDGE Professional)은 저희가 유일하게 추천하는 윤활유입니다. 엔진에 가해지는 그 어떤 거친 요구도 손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특별 제작된 이 제품은 당신의 차량이 최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모든 랜드로버의 오너가 알고 있듯 최고난도의 조건에서 원만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완벽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 전시장에서 캐스트롤 엣지 프로페셔널을 만나보세요.



EXCLUSIVELY RECOMMENDED BY LAND ROVER





BY APPOINTMENT TO
HRH THE PRINCE OF WALES
SHIRTMAKERS

TURNBULL & ASSER

LONDON 71-72 JERMYN STREET | 4 DAVIES STREET | 23 BURY STREET | **NEW YORK** 50 EAST 57TH STREET

TURNBULLANDASSER.COM